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illegible]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蘇聯自由航行問題
列國間意見對立
日英은共同戰線으로反對?
佛蘭西는蘇聯支持

몬트로會議 第三日經過

【몬트로二十四日發同盟】海峽條約改訂會議第三日은 廿四日 續開하고 土耳其政府提議의 軍艦海峽通過條項을 議題로討議를 進하엿다 席上에서 蘇聯代表리트비노프氏는 蘇聯邦의 特殊關係에 鑑하야 蘇聯軍艦의海峽通過에 關해서는 他諸國과 相異한特別規定을 設定하여야할것이란 旨를 主張하엿다 이 海峽無制限自由通航의 蘇聯의要求에 對하야 主要國間에는 果然 見解의 對立을生하야 첫재 英國代表는 日本을 自己편에 끌어너허 蘇聯에 對抗하야 正面으로 反對論을 主張할것으로 解釋되는데 이에 對하야 佛國代表는 蘇聯의 要求支持論을 試할터로 今後의 會議에서 大論戰이 展開될 形勢이다 一方 蘇聯海軍은 黑海오뎃사를 根據地로한 强大한 近代的艦隊를 建設計劃中이라는 報道가잇서서 本問題는 解決까지 相當한 波瀾이 豫想된다

리트비노프蘇聯外相

黑海海軍所持國과

其他諸國과를 一律取扱은不可!
日本代表는强硬反對
몬트로會議의蘇聯提案內容

【몬트로二十四日發同盟】몬트로 會議第三日에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이 行한 提案要旨는 如左하다

一、黑海에 海軍을 가지지아니한 諸國과 黑海에 海軍을가진 諸國과의 海峽通過制限規定을 一律로 取扱함은 不可能하다

一、따라서 土耳其政府의 提案인 新條約草案中 海峽을 通過할수잇는 軍艦의 噸數制限은 黑海에 海軍을 가지지아니한 國家에만 適用되어야할 것이다

一、潛水艦의 海峽通過禁止條項은 航空母艦에도 援用되어야 할것이다

右提案에 對하야 日本代表佐藤駐佛大使는 反對意見을 表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一、日本政府는 海峽을通過하야 黑海에入航하는 軍艦의 通航權에對하야 不當한制限을 加하지안홀것을 條件으로 土耳其政府의提案을 支持하는者이다

右提案에對하야 英國代表는 本國政府의 回訓이到達하기까지 아모런 言明을 避하겟다는旨를 述하얏다 이에關하야 리트비노프 外務人民委員은 다시 如左한 別個의 提案을 行하엿다

相互援助義務를 履行할 目的以外에 交戰國軍艦의 海峽通過를 禁止하는것이 如何오

리트비노프氏의 提案에 對해서는 二十五日 다시 一般討議를行하기로 決定하고 會議는 正午散會하엿다 午後는 技術委員會를 開催하야 商船의 海峽通過에 關한 條項을 審議할터이다

祖國擁護의一念
非人道的行爲指摘
에디오피아皇帝,聯盟總會에出席次
二十五日쥬네브向發

【倫敦二十四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二十五日午後二時 倫敦出發 쥬네브로 向하시기로 決定하엿다 皇帝는 聯盟總會에 親히 出席하사 伊太利政府의 非人道的行爲를 指摘하고 祖國擁護의 熱辯을 吐하실 御希望이라고 解釋되는데 右에 關하야 에디오피아公使館當局은 二十四日夜「皇帝御自身이 聯盟總會에 出席하실는지 그與否는 쥬네브到着을 기다려 決定될것이다」고 述하엿다 (寫眞은 에디오피아皇帝)

皇太后陛下 五十三歲御誕辰

【東京電話同盟】皇太后陛下께압서는 二十五日御五十三歲의 御誕辰을 마지시엿사오니 이날 陛下께압서는 拜賀、參賀、賜饌等을 行하옵시지안코 大宮御所에서 御平常과 御同樣으로 고요하게 보내시엇다 또 秩父宮殿下께서는 弘前에서 御三十五歲의 御誕辰을 마지시엇다

『루』氏再選은不動
스미드氏의루氏攻擊은 個人的不和가主要原因

【紐育發聯合】廿三日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全米民主黨大會를 압두고 前紐育知事 알프레드·스미드氏一派가 루즈벨트再選反對를 絕叫하야 投한 爆彈宣言은 民主黨內에 多少의 動搖를 與하고잇스나 黨內의 一般領袖들은 個人關係의 不和가 表面化한것이라고 그 影響을 輕視하고잇다。

即 스미드、루즈벨트兩氏의 關係는 一九二八年의 大統領選擧戰까지는 스미드氏가 大統領候補로 설때마다 루즈벨트氏가 選擧運動의 先頭에서 이를 支持하고 長年의 親友로 다른사람도 羨望할만하엿스나 同年에 스미드氏가 후-버氏에게 敗하고 그나마 루즈벨트氏는 紐育州知事에 當選되고 또 루즈벨트氏는 스미드氏의 友人인 모-제스氏를 心腹으로삼게되매로부터 次次疎遠해저서 一九三二年의大會에서 兩氏가 大統領候補의 指名戰爭을한 以來一層疎隔하게되엇것으로 그것이今回에 表面化한것이라고하며 또 元上院議員이엇던 리-드氏도 前回의 指名選擧의 競爭者이오 또 元國務長官 콜비-氏는 民主黨內의 하-스트系의 代表者로하-스트氏가 루즈벨트氏와 絕緣狀態가 되엇기때문에 自然反對의 立場을 取하게된것이다 이러한 個人關係가 루즈벨트氏의 有力한 背景이 되는것이라고 보이기때문에 그만큼 政治的으로 同情할수잇는 힘은 적다고보매 結局 루즈벨트再選의 大勢는 움즉일수업스리라고 觀測하고잇다 (寫眞은 米大統領루氏)

에皇帝入國許可
瑞西政府閣議決定

【베른廿四日發同盟】瑞西政府는 에디오피아皇帝의 제네브入國許可要請에 關하야 二十四日閣議를 開催하고 協議한 結果皇帝의 쥬네브訪問을 許可하기로 決定하고 如左히 回答하얏다 皇帝가 쥬네브를 訪問하고 聯盟總會에 出席하사 祖國의 立場을 辯明하는것은 相關업스나 右目的以外에 訪問하는것을 不許한다

英外相廿五日 쥬네브向發
途中佛政府와協議

【倫敦二十四日發】英國代表이든 外相은 聯盟理事會와 總會에 出席하기爲하야 二十五日午後三時 倫敦出發 쥬네브로 向하기로 決定하엿다 途中 佛國에들려 블룸首相 델보스外相等과 會見하고 聯盟理事會와 總會의 態度에 關하야 隔意업는 意見交換을 遂할 豫定이다

一般會計增稅와 外地增稅案併行
◇大藏省議로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省은 二十四日午後二時부터 藏相官邸에 省議를 開催하고 馬場藏相을 中心으로 中島川越兩次官 丹下參與官 山田主稅 廣瀨主計 賀屋理財 各部局長이 出席하야 主計局所管特別會計의 增收策에 關하야 協議하고 午後五時 散會하엿는데 席上에서 十一年度各特別會計의 歲入을 逐條的으로 檢討하야 各特別會計에서 一般會計에 繰入될 餘裕가 잇느냐 업느냐를 研究한結果 外地特別會計에는 某程度의 增稅를 行케하는 同時에 遞信、鐵道兩會計에도 增收를 圖하게하야 써 相當額을 一般會計에 繰入하려고 今後 大藏當局에서 具體案을 研究하는同時에 關係各省에 對해서도 折衝을 行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다 卽 各特別會計는 昭和十年度豫算編成에 際하야 減債基金繰入의 增加를 圖하고 다시 十一年度豫算編成에 際하야 減債基金增加外에 二千四百萬圓의 繰替使用을 負擔한터인데 十二年度豫算에서는 所謂 廣田內閣의 革新政策實現에 伴하야 顯著히 豫算이 膨脹되므로 一般會計는 國民의 犧牲에 訴하야 增稅를 斷行하기로되엇스므로 各特別會計에서도 이를 併行하야 多少의 犧牲을 하게하자는것이 財務當局의 意向이다 그런데 外地의 國稅一人當負擔額은 如左히 日本內地에 比較하야 顯著히 稀少하야 相當한 擔稅力의 餘裕가 잇다고 보이므로 日本內地의 增稅案과 聯繫하야 增稅의 具體案을 立案시키기로하고 大藏當局으로서는 近近 大體의 檢討를 마친 다음 各特別會計마다 一定한增稅額을 提示할 意向이다 그런데 遞信鐵道兩省에 對해서도 同樣으로 一定한 繰入額을 要求할터인데 大藏省으로서는 特別會計繰入의 名義는 國防分擔金이란것을 避하고 一般納付金或은 繰入金의 形式을 取할意向이다

◀內外地一人當租稅負擔額比較 (九年實績 單位錢)

日本內地	二二、一七
外地	
朝鮮	二、四五
臺灣	四、九九
樺太	五、七七
關東州	五、二三
南洋	三七、四三

(但砂糖消費稅를除外)

日英親善促進
吉田大使着英第一聲

【倫敦二十四日發同盟】新駐英大使吉田茂氏는 二十四日午後 倫敦에 到着하야 即時大使館에서 新聞記者와 會見하고 大要如左한스테이트멘트를發表하엿다

英國에 잇서서의 나의 最大目的은 日英兩國의 親善을促進하는데 不外하다 國家親善은 共同利害에 基한 關係가 가장 强固 또는 永續的이다 그리고 그것은 不斷의 誠意와 雙方의 理解로써 開拓해가지 안흐면 안된다 나는 日英親善을 爲하야 全能力을 擧하야 이目的의 貫徹을爲해 努力하고 또 밋는것이 最大의 責務라고 밋는다 目下 日本에서 힘잇게 絕叫하고잇는것은 日英의 傳統的親善關係의 更新이다 그러나 過去의 經驗에 依하면 此等親善感情은 부질업시 兩國間에 分轄되어 存在치안헛다 나의 眼目은 이親善感情을 兩國間에 育成하는同時에 이를 調和合體시키는데 잇다

話題解說
對濠通商擁護法發動

◇ 日本政府는 今二十五日을期하야 對濠通商擁護法發動을 公布하엿다

通商擁護法發動이라함은 日本商品에 對하야 不當한 壓迫을 加하는 外國에 對하야 그 報復的 手段으로 當該國의 輸出入商品의 高率的 關稅를 賦課하며 또는 嚴格한 輸出入統制를 斷行하야 當該國을 貿易經濟上으로 制裁壓迫하려는 法令實施를 말하는 것이다。

◇ 日本商品은 安價高品質로 世界에서 그生産費가 低廉하기로 有名하다。따라서 最近五六年間 未曾有의 大恐慌裡에서도 日本商品만은 世界的大進出을보게되엇거니와 그反面에는 世界列國은 國內産業擁護를 圖하기爲하야 特히日本商品에 高率的關稅를 賦課하게되엿다。그러나 日本側으로 본다면 對日貿易에잇서 入超가되는 나라는 別問題라치더라도 加奈陀、濠洲、印度가튼「메-버-밸런스」를 갓고잇는 諸國에서 日本商品에 對하야 輸入禁止的 高率關稅를 課한다함은 不當하다고생각하고 此等諸國에서 不當한 政策을 繼續하는 此에 對抗하기爲하야 昭和九年 法律第四十五號 即「貿易調節及通商擁護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고 此에 基하야 政府의 權限으로 隨時 通商擁護法을 發動할수잇게되엿다。

◇ 通商擁護法發動은 이番이 第二回째다。第一回는 昨年七月二十日 加奈陀에 對하야 發動식히엇는데 昨秋 加奈陀總選擧에 依하야 政府黨이엇던 保守黨이 敗北하고 自由黨天下가되엇에따라 日加新通商條約의 成立을 보게되엿스므로 此에對하야 對加奈陀 通商擁護法은 自然解消되게되엿다。그리고 이番 濠洲에 對하야 이法을 다시發動케되는 經緯는 再昨年五月 濠洲外相의 訪日을 機會로 以來 濠洲시드니港에서 日濠 新通商條約締結을 目標로 正式商議를 繼續하여오던바 그間 濠洲通商大臣의 突然한 渡英으로 不得已中止되엿다가 今年正月부터 다시商議를 開始하엿는데 濠洲側은 始終一貫의 强硬態度로 日本人絹及綿布에對한 自制를 要求할뿐아니라 五月二十三日에와서 突然 綿布는 從價十割乃至 四十割의 輸入禁止的關稅와 人絹은 十割乃至 四十割의 輸入禁止的關稅課率 發表實施하게되엿슴으로 이에 會商은 決裂되고 及其也 通商擁護法 發動을보게되엿다。

◇ 對濠通商擁護法의 內容은 如左하다

一、羊毛屑又는羊毛、小麥及小麥粉에對하야는 輸入許可制

二、毛屑及毛織物에對하야는 輸出許可制

三、牛肉、牛脂、바터、콘덴스밀크、革類、牛肉、카세인等에 對하야는 關稅五割增加

知事會議第三日

各道知事會議第三日은 二十五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首日에 繼續하야 諮問事項인 中等敎育擴張方針과 社會事業施設의 實施에 關하야 答申을 行하고 各道로부터 提出된 産業經濟 社會 敎育其他各部門에 亘한 意見 約二百項을 總督府에서 모아 各局所管으로 區分作成한「提出意見處理方針」에 基하야 順次提出하고 道知事의說明, 이에 對한 質疑와 總督府의處理方法等에 關하야 討議를 行하엿다 午後도 意見陳述이 繼續되고 會議第三日의 日程을마칠터인데 出席者一同은 午後六時부터 軍司令官邸의 晩餐會에 臨할터이다

海軍界의革命兒!
英最新式水雷艇
攻擊的武器備置・空襲엔絕對安全
建造費는驅逐艦의十五分之一

【포-츠마스二十四日發同盟】포-츠마스海軍造船所는 英國海軍省의 註文에基하야 過般來 快速水雷艇建造에 從事하고잇던바 今回 第一期分六隻이 完成되어 二十四日 英海軍省에 引渡를完了하엿다 右水雷艇은 乘組員十名으로 强力한 모-터를 備하고 時速四十哩 空襲에 對해서는 絕對安全裝置를 加하고 또 攻擊的武器로서는 魚雷發射管二門、備砲一門을 裝備하엿다 建造費는 極히 低廉하야 驅逐艦一隻의 建造費로써 훌륭히 十五隻을 建造할수잇다는 海軍界의 革命兒이다 英海軍當局은 近近 試驗演習을 擧行할터인데 新銳水雷艇의 性能에 多大한期待를가지고잇다

八面鋒

制裁는撤回하여도 伊太利의 에디오피아「倂合」은 承認하지안켓다고。
◇
이든君、아즉不惑之年에未達하얏슬지라도、大英帝國의外務大臣이니 不渡手形濫發은 謹愼함이若何오。
◇
對濠通商擁護法의發動으로 朝鮮의綿羊事業이 有望하게되리라고。
◇
法으로 왓다갓다하는 景氣라하면 法이 撤廢되는날의 不景氣가 미리걱정되는일。
◇
쌀豐年、繭豐年、棉豐年에 놀내農民이 얼마관데、只今에 또 羊毛豐年을 謳歌하는고。
◇
블럭經濟는 一種의鎖國經濟、一朝에門戶가 開放되는날에는 거품가튼 景氣의消散도必定。
◇
百年大計라하면 與民同樂을可期할 萬年不敗의策이 잇서야 할노릇。

地中海岸諸港
罷業益益擴大

【巴里二十四日發同盟】마르세이유港을 皆始하야 地中海沿岸諸港의 罷業은 益益 猖獗을 加하게되엇다 巴里의 諸新聞은 事態를 重大視하고「볼쉐비즘의進擊」이란 大題目으로 詳報하얏다 一方 상나제海軍造船所에서 建造中인 裝甲巡洋艦數隻 潛水艦四隻의 造船工이 一齊罷業에 參加하엿기때문에 艦艇計劃의 頓挫가 憂慮되고잇다 政府當局에서는 善後策에 關하야 腐心中이다

日本商船射擊에
海軍側重大聲明
北中密輸問題重大化

【天津二十四日發同盟】久保田海軍武官은 二十四日午後二時 中國側이 反省치안는限 日本은斷乎 自衛行動을 取할밧게업다는 旨의 重大聲明을 發表하야 海軍側의 立場을 闡明하엿다

聲明

中國稅關監視船의 逸軌行動에 關해서는 압서 廈門에서의實例가잇서 이미 海關告示에依하야 海關當事者는 注意를밧고잇슬터이오 勃海方面에서도 이를 聞知함에依하야 警備의 任에 當하는 日本海軍으로서는 右에關하야 去四月十日 旅順要港部司令官의 名義로 天津海關長에 對하야 嚴重警告를 與하야 海關長은잘 部下에게 徹底케하도록 要請하엿다 今回의 大榮丸事件과 如한暴行은 全혀常軌를 逸하야 監視船으로서 嚴正遵守할法規命令을無視한것으로 如何한 詭辯을弄하더라도 監視船乘組員의無秩序를 暴露한것은 掩蔽할수업다 特히明確히 日本國旗를揭揚한 겨우八噸바게안되는 無力한 商船에對하야 彼等의 口實인 密輸品의事實이 업슴에도 不拘하고 監視船인 旗幟를 揭하고 突然發砲하야 無辜의 乘組員을 傷하엿슴에 이르러서는 日本國民이 가장 崇拜하는 日本國旗에 射彈을浴케한것은 거의 海賊行爲와 何等 다를것이업다 生命財産保護에 任하는 日本軍部 特히 海面警備擔任의 海軍으로서는 斷然 이를 看過키 不能하다 日本海軍에게는 所信의 行動을 하지안흘수업서 그에 責任하려는 者이다 勿論 日本交涉當局은 이때까지 是是非非와 公正한 立場에서 問題를 處理할것은 不必多言이니 經過와 彼方의 態度에 對하야 極히 重大視하고잇는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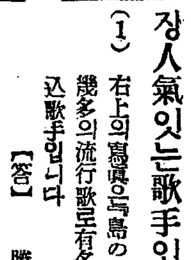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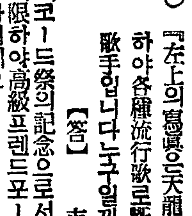
懸賞

流行歌 特別發賣 물새야 웨우느냐
콜럼비아레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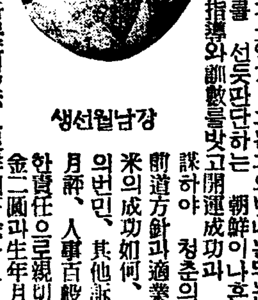
入賞者壹百名
—懸賞課題—
一、世界一의蓄音器、레코-드의名稱
二、『물새야 웨우느냐』의歌手는 누구인가 또 어느會社의 專屬인가
三、同上레코-드의番號는 몃番인가
—賞品—
嚴正抽籤한後左記賞品을 贈呈함
一等 콜럼비아携帶用蓄音器 (第五五號定價廿五圓)一台式五名
二等 新型電氣라디오 一個式 十名
三等 콜럼비아레코-드 一枚式 八十五名
—募集規定—
一、用紙는官製葉書
一、京城府長谷川町一一 콜럼비아會社 懸賞係로보내시오
一、期限은六月三十日 發表는七月末日新聞紙上에
一、이廣告를보신新聞名을朱書하시오

朝報案內
指導
板谷生命朝鮮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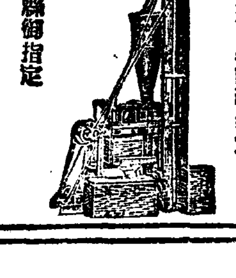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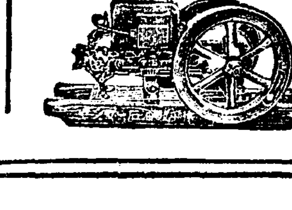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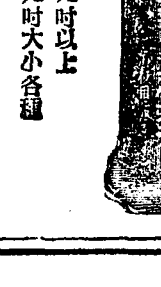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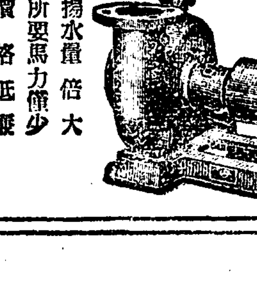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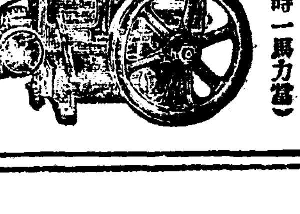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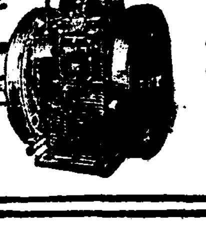
三好水白粉
朝鮮 京城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二七番

蓄音器界空前의會集
레코-드祭!
누구일까요?
이寫眞은레코-드界에서가장人氣잇는歌手입니다


(1) 右上의寫眞은「島の娘」를비롯하야 幾多의流行歌로有名한레코-드吹込歌手입니다 【答】勝○郎
(2) 『左上의寫眞은「天龍下れば」를비롯하야各種流行歌로斷然人氣잇는名歌手입니다누구일까요? 【答】市○
훌늉한賞品의贈呈規定
今番蓄音器愛好諸賢께레코-드祭의記念으로서左의規定에依하야答案正解者五百名에限하야高級프렌드포-타불 一臺式贈呈합니다、奮發하야應募하십시요………
A、B、解答은一人一答限으로右丸型의文字를記入하여주십시요
イ、解答은封筒에너허返信費로서(二錢切手四枚)를封入하고
ロ、三錢切手를貼付하고住所氏名을裏面에明記하여주십시요
ハ、正解者多數의境遇에는抽籤法에依하야五百名을選定하야 훌늉한프렌드포-타불 一臺를贈呈합니다
ニ、應募解答의締切은이廣告揭載日로부터十日間以內로하고 當選贈呈者에게는締切後곳通知합니다
ホ、答案宛所東京麴町飯田町二ノ二大同工業商會宣傳部
五百名에게贈呈할포-타불
一家가가추어 新春의 歡樂으로 (레코-드祭記念品)
贈呈蓄音器는 鐵道便으로보내는故로最近驛名을記入하십시요
(實物寫眞圖)

品質優良 堅牢保證付
外函・優美奏音の錦レザーモロッコ張
音色・明快にして柔軟各樂器の分離極佳
◆高サ 八寸六分 ◆奧行 一尺三寸 ◆巾 一尺一寸 ◆重量 一貫八百匁
●當選洩れ全部の方へは… 勝太郎・市丸・ブロマイド 一枚 流行唄全集・新民謠集 三冊 贈呈!
¥28.00

奇人奇聞의片信
동양唯一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강남월선생
姜南月先生은果然어떠한奇才人인가 그는그의빗나는두눈이 사람을대하는즉시 過去現在未來를 선듯판단하는 朝鮮이나흔 天才觀相家이다 하로밥비 先生의指導와訓教를밧고開運成功과 幸福을事前에圖謀하야 청춘의煩悶을해결하라 前道方針과適業指示며、金鑛期米의成功如何、結婚及夫婦관계의번민、其他訴訟、就職、行年月所、人事百般모든問題에 永遠한責任으로親切詳論◇地方은 料金二圓과生年月日時分明記送하면詳細答送하오 寫眞添付尤好 但、相보러올때에 男子는술먹지말고 女子는분바르지말고오시오
◇京城府昌信町六百八十七番地 東大門越便公衆便所側골목入
姜南月觀相所

誠鶴
理想的 滿夏飮料
釀造元 深見釀造場吟醸

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電話本局長一〇〇三番
力武式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取扱簡易能率多大
各府縣御指定
型錄은請求하시면卽時拜送합니다

오후셋도式

胴徑九吋以上 十九吋大小各種
一馬力半以上 十五馬力
얀마-石油發動機

얀마-바-치칼폼푸
三大特徵 揚水量倍大 所要馬力僅少 價格低廉

口徑二吋以上
얀마-渦卷폼푸
今年도역 揚水와排水할 時期가되엿습니다
얀마-폼푸를
橫型 三馬力以上十五馬力

專賣特許
모든點으로서絕對優秀의 追從을不許한燃料費一錢團 (每時一馬力當)
十馬力以上 百馬力

얀마-디-젤

警官의瀆職激增

免職前提의休職者만五、六兩月에六名

警務局에서防止策을研究中

경무국에서는 최근 경찰관리의 범죄사건이 격증하여가는 경향이잇스므로 이것의 방지와 경찰관리의 교양향상책을 강구중이라는데 이문제에 대하야는이번에 열리는 경찰부장회의에서도 협의를 할터이라한다 경찰관리의 범죄는 금번에드려서도 견책(譴責)감봉(減俸)등의가벼운 징계처분은 제외하고라도 독직사건관계로 장차면직식힐작정으로 휴직을식힌 경찰관리만이 륙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전부오월로부터륙월두달동안에생긴것이다 이와가티 경찰관리의 범죄사건격증은 소위경찰정신의 고양(高揚)상은 물론 민중보호지도와범죄취체의 처지에잇는 경찰의면목에 관계되는일이라하야 감찰제도의 확립에의하야 또는 대우향상과 교양향상에의하야 범죄의 방지책을 강구할터이라한다

國際"스파이"取締網

七月末부터實施

十一道에는外事係를特設코 外事課는京畿慶南만新設

경무국에서는 어번에 국제「스파이」방지제망의 확충을 도모하게되야 이에관한 예산십팔만원을 특별의회에 제출하야 어더노코 경무국과 각도의 외사경찰과구의회대경회에대하야 준비중이든바 최근에 대체성안되엿스므로 칠월말부터 실시하게되엿다한다 그런데 그외사경찰확충안을 보면 경긔도와 경남에는 외사과를 경찰부에 신설하야 현재의 고등과사무로부터 분리식히게하되 과장에는 경시를 임명하고 그외의 십일도에는 경찰부고등경찰과안에다가 외사계를 특설하야 경부를주임으로 임명케한다 이외에 경무국보안과에는 외사계를 또중요한 각경찰서에는 외사경찰전임행사를두어 외사경찰의 사찰사무를 보게할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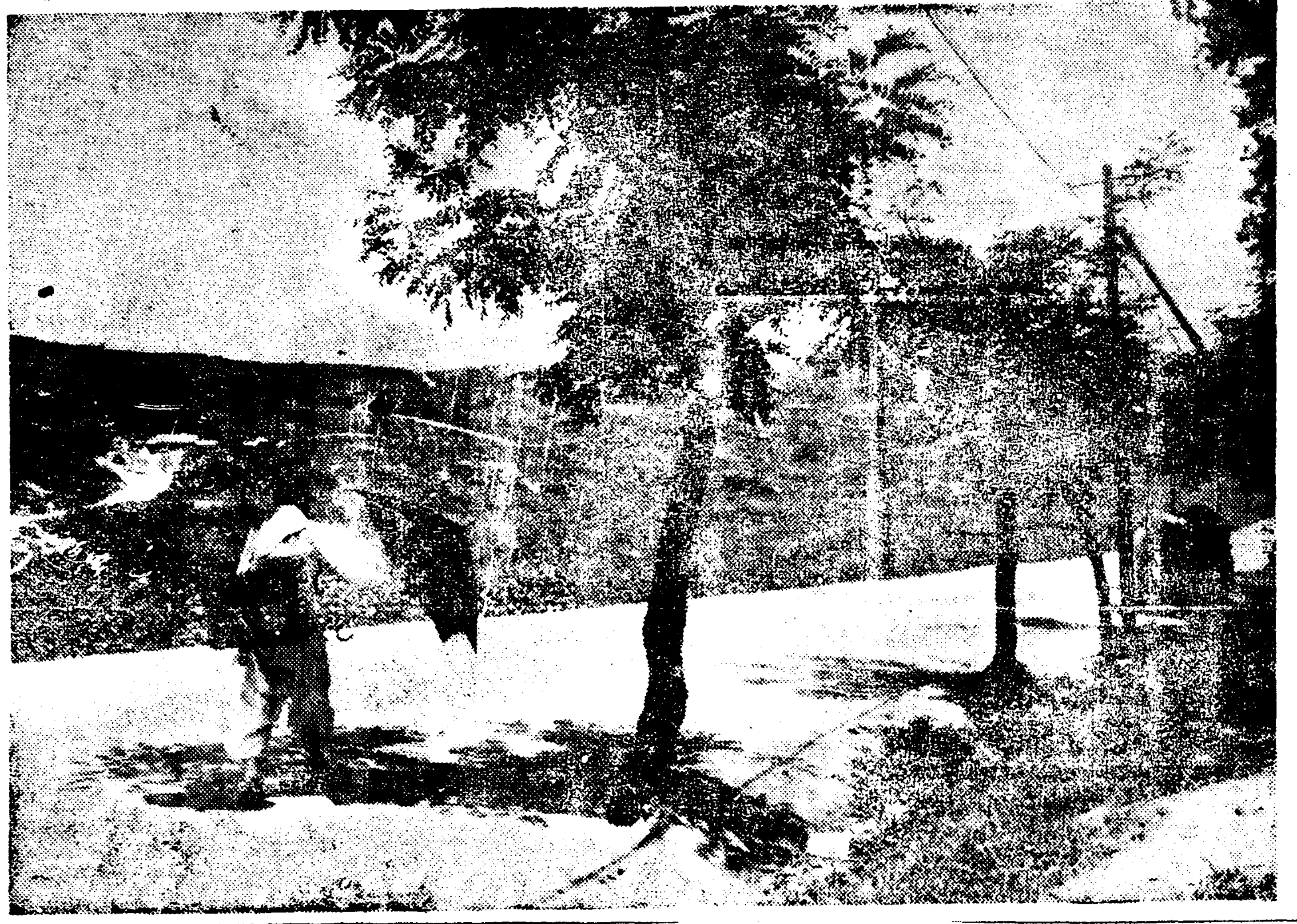
金비녀뺏긴老婆

禮智町밤거리에서

廿歲前後青年、바람가티潛跡

犯人의行方은迷宮

이십사일 밤열한시반가량되여 시내례지정(禮智町)구십번지 김영태(金榮泰)씨의 모친 신씨(申氏)(六七)가 나드리를 갓다가 도라오는길에 그동리팔십사번지 문아페 이르럿슬시음 회색학생복을입은 나이스무살쯤 되여보이는 청년이 뒤로할큐 달려드러 신씨가 머리에꽂고잇는 금비녀ー시가 칠십원짜리ー를 빼가지고 바람과가티 그림자를 감초고말엇다 이급보를받은 소관동대문서에서는 곳서원을 소집하야 방금 범인을찻는중이라한다。



고개넘어 한숨후유!——(郊外에서)

平壤乞人検擧

本籍地에放逐

【平壤】평양시내에는 타도시나 군부에서 모혀드는 거지가 전시가에 범람하여 부민의곤난도 만불터이므로 평양서에서는 거지구축에대하여 주의하여 왓섯스나 최근에는 중대사건의 속출로 잠시동안중지되여잇든바 이십삼일 오전여섯시부터 여덜시까지에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거지검거를 개시한결과 검거망에 걸린 거지가 삼십여명에 달햇다 거지떼중에는 단오날 맛나는 음식을 어드려고 해장을 수습해가지고 등장하다가 전부 잡힌것으로 취조후 전부 본적지에 쏘차버렷다

麻雀賭團検

신사[마ー짱]도박단이 서대문서에 일망타진되엿다 시내천연정(天然町)구십이번지에사는 연경희(延敬熙)(?)는 이십사일오후아홉시쯤에 자긔집에서 마ー짱가 한괴현(韓基鉉)(?)외 세명을불려가지고 대규모[마ー짱] 도박을하다가 서대문서에 잡혓다고한다

金冠胄瀆事件討議

府會召集을要求

今後를爲한惡例라하야

平壤社會輿論沸騰

【平壤支局電話】 민족적보물이라할 신라시대의유물 순금보관을 연구한다는 서투른리유로 기생의머리에 씌우고 사진까지 박은사건은 본보특보로 한번세상에 발표되자 평양박물관장 소천(小泉)씨와 책임당국자의 경솔하고무엄한처사에 대하야 일반사회의 분개는 실로커서 평양사회에잇서서는 금번박물관 당국자의 실태는 단순한일시적 과실로만 볼수업고 금후에잇서서도 민족적으로 추앙하고존귀하게녀이는 보물취급에 당하야이러한불근신하고 경솔한취급이 통례가된다면 그미치는바영향이클것을생각하고이사건에관하야 대책까지론의되고잇는바 이와동시에 민간사회뿐만아니라 당국자들로서도 금번사건을 매우유감으로생각하고 일부에서는 분개하고잇는터로 평양부의원측에서도 이문제에대하야 거저잇슬수업다고하야 대책을강구코저 부회소집을요구하야 근근부회가열릴터이라고한다

沐浴하다溺死

【鐵原】 지난 이십이일 오후두시경에본적을 강원도삼척군근덕면동막리일구(江原道三陟郡近德面東幕里一區)에둔 김진?(金??)(?)는 생활 곤난으로 자긔형님 용권과 가구(家具)수선업차로 그곳까지 와다가 더위를 피코저 목욕하다가 물의기품을 아지못하고 점점기픈곳으로 드러갓다가 나오지못하고불상히도 빠저죽엇다고한다

海州에세번째强盜

이번엔高山面에出現

犯人은저번事件과同人인듯

被害者重傷・警察緊張

【海州支局電話】 재녕에서열렬하로밤에 해주경찰서관내 농가에 두곳이나 침입하야 주인을 칼로찔르고 형이을협격하야 금전을 강탈도주한 괴강도사건이발생한이래 해주서에서는 곳 장연(長淵)송화(松禾)신천(信川)등 린접경찰서의 응원을어더 물샐틈도업시 경계선을펴고 범인을 찻고잇든바 이십삼일에는 또다시 경찰을 조롱하는듯이 해주군고산면(高山面)에 흉기를가진 강도사건이 발생하야 경찰당국자를 놀래게하엿다

이십삼일 오후 열한시오십분 해주군고산면 원평리(原坪里)농업 리규영(李奎永)(?)의 집사랑방에 괴한한명이 침입하야그방에서 자든 주인을 일으키여 칼로 바른편가슴과 무릅을 찔러 중상을 식힌다음 칠원칠십여전 들은 지갑을 빼서 가지고 도망하는것을 전긔리규영은 중상을 당하엿슴에불구하고 죽을힘을다하야 도적이야 소리를 치며 쪼처가다가 문밧게서긔진하야쓰러지자 괴한은 다러나다가돌띠와서 혼도된 주인의무릅을또찔르고 도망한사건이 발생하엿다 이급보를 바든 해주경찰서에서는 대경실색하야 전긔고산면을 중심으로 범인을엄탐중인데 범인은전번범인과가튼사람이아닌가 추측되다고한다

서울求景온세少年

"러브"의"드라이브"

旅館을차즌것이遊廓에投宿

龍山署에保護検束

알궂은 운명의 장난은—이십사일 오전 열한시 반쯤되여 시내 룡산서한강통 파출소원이 때마침 그파출소 압흐로 행동수상한 소년세명이 창긔가튼소녀들을 자동차에 실고 『드라이브』해 가는것을 불심하게 여기고 불러멈추게한후 문초한결과 이소년들은 함흥부본정(咸興府本町)일정목 이백이십사번지 광산가 김황수(金晃洙)(?)의 맛아들 인경(仁敬)(?)가튼부가튼동리일백이십륙번지 김명계(金明桂)(?) 가튼부황금정(黃金町)이정목 사십륙번지 양순렬(楊順烈)(?) 등으로 그중 김인경소년이 지난 이십이일밤 자긔의 아버지가 잘는틈을타서 현금사십원을 몰래 꺼내가지고 집을 나와서 자긔의 가장 가까웁다는 전긔 두소년을 차저가서 서울구경을 가자고달래여 그이튼날인 이십삼일 오전여섯시오십오분 함흥을떠나는긔차로 서울에올라와가지고 낫서른도회지에 향방업는 나그네길이니만치 거리와 거리를헤매이다가 밤이되자 숙소를 찻는다는것이 그릇되여 서사헌정(西四軒町)에잇는 금강루(金剛樓)라는 유곽으로 드러가게되엿다 한다. 그래서 그곳서 유혹의 하로밤을 지내다옵 그이튼날인 이십사일 김봉희(金鳳姬)(?)김효성(金孝誠)(?)두소녀를 태워가지고 그가티 "드라이브"를 나갓다가 붓지핀것인데 그들세소년은 방금 그서에서 보호검속중으로 전긔금강루주인 김원식(金元植)은 소관본정서에서유인죄로 처벌하리라한다。

市內外에根據둔

類似宗教를彈壓

東署管內에서第一着清掃

먼저걸린靈覺、甑仙兩教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고등계에서는 최근관내에잇는 각류사종교단체(類似宗教團體)의 청소(清掃)를단행하려고 그내용조사에주력하여오던중 시내 동숭정(東崇町)오번지에 본부를가진 령각교(靈覺教)라는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렷다 이단체는 소화팔년이월경부터 장두진(張斗鎭)이라는사람이 금강산(金剛山)에서 수도하고나와서 스스로교주가 되여 윤용병(尹用炳)등과 손을잡고창립한것으로 그동안 상당한 교도를가저오든중 작년가을에 그교주가 사망한이래 그내용이보잘것업시 되여잇던것으로 이번에 전긔와가티해산되고마럿것이다 도시내종로오정목에잇던 전라남도 정읍군덕산면 신월리(井邑郡德山面新月里)에 본부를둔 진선교(甑仙教)라는 단체의 포교소(布教所)를 최근 동숭정(東崇町)으로 이전하게다고 그서 고등계에 청원하여왓는데 이도역시 손을대일 작정으로 위선이전을 허가치안코 그내막을조사중이다

朝鮮全域의癩患者

一萬三千餘名多數

그中六千六十九名만收容코

未收容患者七千餘名

경무국위생과에서 조사한바에의하야 금년사월일일현재에 문둥병자의 상태를보면 소록도(小鹿島)에잇는 갱생원(更生園)에수용한 환자가 삼천구백이십칠명이고 그외에 대구라병원(大邱癩病院) 부산라병원(釜山癩病院)애양원(愛養園)의세곳에 수용한것이합계이천백사십삼명이다 그러므로 총환자일만삼천칠백사십명중에서 전긔수용환자 륙천륙십구명을 제외하면 수용치못한환자는 칠천륙백칠십일명이다 총환자중 남자는 일만륙십오명 녀자는삼천륙백칠십오명인데 그중에 부랑(浮浪)환자는 남자가 일천구백구십팔명 여자가칠백이십구명 합이천칠백이십칠명이다 그러나 재산이도모지업서 자력으로 치료할수업는 환자가 삼천삼백오십삼명의 다수에달함으로 미수용환자의칠천륙백여명중 적어도 륙천여명은 강제수용을하야 치료식히지안흐면 치안상또는 위생상큰문제이다

白晝、海州에또强盜

이번엔壯谷面에

칼로亂刺코現金八百圓强奪

警察을嘲笑하는犯行

【海州支局電話】 해주경찰서관내에는 이십일일 하로밤에두곳, 이십삼일에 한곳 연거퍼 세차례나 상인강도사건이 발생하야해주경찰서에서는 린근각경찰서와 련락하야 범인을엄탐중이라함은 별항과갓거니와 또다시이십사일 오후네시쯤 백주에 해주군 장곡면 백운리(海州郡壯谷面白雲里)일천이백 사십팔번지농업 최광재(崔光載)(?)의집에 약삼십세 가량된 청년한명이차저와서 벼팔것이 업느냐고 무름으로 업다고 하매 그는미리준비하여가지고 왓든칼로 주인을 위협하고 돈을내라고하야흥부의 일곱개소를 함부로 찔러 중상을 내인다음 돈 팔백여원을 빼서가지고 어듸로 잠적한사건이 또발생하엿다 이급보를 바든 해주서에서는 곳전번범인과가튼 사람이라고 단정하고그근처일대에 철통가튼 경계망을 느리고 범인을 이잡듯이 찻는중이다

釜山検事局에넘겨

곳刑務所에收容

金海運輸會社不正事件段落

【釜山支局電話】 경남경찰부에서 검거취조중이든 김해운수주식회사(金海運輸株式會社)의 부정사건은 이십오일 오전열시에 전김해경찰서 경무주임이엿든 공등보사랑(工藤保四郎)(?)을입 곱명은 신체구속으로남해(南海)경찰서장 립석(立石)경부등 여섯명은 신체불구속으로독직(瀆職)증회(贈賄)배임(背任)횡령(橫領)등 혐의로 부산검사국에일건서류와함께 넘겻다그검사국에서는 송전(松前)차석검사의 담임으로 위선 대강 취조하고 모다 부산형무소에 수용하엿다 검사국으로 넘긴 관계자의 성명은 다음과갓다。

◇身體拘束送局者=工藤保四郎(前金海警察署 警務主任)(?)▲具本石(金海運輸會社常務)(?)▲朴在洪(金海運輸會社常任監査役)(?)▲金斤植(金海運輸會社監査役)(?)▲渡邊信道(金海運輸會社取締役)(?)▲裵基澈(?)以上四名은 贈賄及背任橫領嫌疑▲片岡武信(金海郵便所長)(?)以上兩名은 橫領嫌疑

◇身體不拘束送局者 ▲李康濟(?) 同會社前社長 ▲金興龍(?) 同會社監査役 ▲姜元錫(?) 同會社取締役 ▲印東哲(?) 同會社取締役 ▲井上清治(?) 同會社前取締役 ▲宮崎鶴吉(?) 前金海警察署長 ▲立石四郎(?) 現南海署長 (休職)

天氣予報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흐리며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흐리다

昨日最高	二九度一
同 最低	一七度五
今朝最低	十七、八
今 正午	二五、四

運動競技

地域對抗女子陸上

日本陸聯主催의 全日本女子地域對抗陸上競技會는 來八月二十二三兩日間 午後三時부터 神宮競技場에서擧行할터인데 朝鮮에서도 豫選을行하야 代表選手를派遣할터이라한다

平壤遠征中의延專籠球團

四戰三勝一敗

【平壤】 延專籠球選手團招聘戰의 第二日은 二十三日午後八時三十分부터 崇專體育館에서 繼續開催되여 第一次戰인 光成高普와의 對抗戰에는 四十一對二十八로 延專이이기고 第二次戰인 崇仁商業戰에는 崇商에게 壓倒되여二十九對十八로 延專敗하여 兩日間을 해보면 延專軍은 四戰三勝一敗의記錄을 남기엿다

女子排球大會

七個校가參加

朝鮮排球協會서는 來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女子排球大會를 開催하기로되엿는데 參加팀은 京城女高 淑明 進明 同德 一高女 二高女 龍谷의七個校이며 各校對陣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A第一高女對龍谷高女 B京城女高對淑明女高 C進明女高對第二高女 同德女高不戰勝

▲準決勝=A勝者對B勝者 C勝者對同德女高

세軍平壤에서全勝

【平壤】『세네터ー스』對平鐵野球戰은 十八對六으로, 『세네터ー스』對 平實野球戰은 六對二로平壤에서 全勝하얏다

遞信局漕艇大會

遞信體育協會水上競技部에서는 廿八日午後一時부터 漢江人道橋下『코ー스』에서 漕艇大會를 開催할터이다

女子卓球戰에七個校出場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一回京城女子中等學校對抗卓球리ー그戰은 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京城女子實業講堂에서 開催할터인데 參加校는 女子實業 同德 第一高女 女子商業 淑明 京城女高 第二高女等의七個校이라한다

東光醫院
X光線新設 無料로奉仕
부내관철정(貫鐵町)대광교(大廣橋)부근에잇는 동광의원(東光醫院)에서는개업이래 일반환자에게 실비로 친절이 봉사하여 오든중이엇섯는데 이번에막대한경비를들여 『엑쓰광선과』(X光線科)를 새로설치하고 그신설을계기로 무료로 엑쓰광선을이용하여 건강진단을하여주기로되엇는데 일반폐결핵환자와 불건강한사람에게는다시업는조흔기회가될것이다(광고)
貫鐵町六番地・大廣橋附近 東光醫院 電話(光)四〇番

우수한 치림약 리ー베루 リーベル
本劑의特徵
一、膿粘膜으로부터吸收가極히速하고、服藥후尿道粘膜을通하야 『리베ー루』냄새를排出한다、그러케되면벌서快感을늣끼게된다
一、尿道로侵入하는無數한黴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 ……에依하야體外로洗出된다、따라서膿、痛症도解消된다
一、藥効를確實히알려면『리베ー루』의 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顯微鏡으로比較檢査하는것이速하며服藥後날을따라黴菌의減滅되는現象을볼수잇다
他藥에迷惑되지말고治淋藥으로信用이두터운特製『리베ー루』를服用하시라、全國各藥店에잇슴、萬一品切時엔本舖에直接注文하라、送料不要
五日分 ¥2.00 七日半分 ¥3.00 十三日分 ¥5.00 廿七日分 ¥10.00
本舖 大阪市南久太郎町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斯界定評公認서울아ー一式
迎歡大注文体團 カタログ進呈함
蹴球靴 五圓五拾錢 白黑茶色
ラケツト
フットボール
A-5.50 B-5.00 C-4.50 A-4.50 B-4.00 C-3.50
京城公平洞……서울運動具製造所

恩給
長期低廉融通 他에比較업는最有利 信用은事務所의 特色 照會는同各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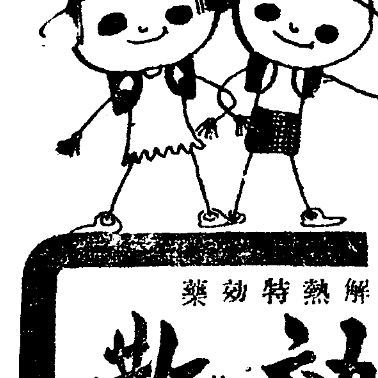
寫眞機와材料
奥山寫眞機店
釜山大廳町 電話二四三 振替八五八〇
(カタログ進呈 定價表)

개량담배대
京城鄭閣設計特許新案 流行되는담배대 價格低廉이하야
製造發賣元
京城府鍾路三丁目六九 德昌工業社
型錄及定價表送呈합니다

불탄 암닭

『아메리카』서북편에서 녀름 일기가 간조할때에 들불이 나서 그지경에 사는 백성의 동리에 넘어와서 큰 재앙을 끼치는일이 가끔 잇는것이다 그리하야 여러가옥이 불살움을 당하야 어찌할줄을 모르게 되는것이엿다 그 가족들이 불의의 재앙을 당하야 그 리웃 동리에서 달녀 나가 흑 어떤 사람이 그 불이 지나간 후에 한 구원대가 나와서 도음을 구하는자가 잇는가 하고 살펴보게 되엿다 저희가 한 불탄 집을 지날 때에 대원중에 한 사람이 본즉 땅 우에 새까만 닭이 잇는것 갓햇다 가서 보니 과연 한 암닭이 불에타 죽어서 그 머리와 등은 숫이 되엇더라 그런데 그 안즌 모양이 날개를 좀 버리고 잇는것 갓흠으로 발로 한번 찬즉 저은 병아리 세머리가 뺭뺭 소리를 하며 달아 나왓다 그 어미암닭이 그 사오나운 불꼿 속에서 제 몸이 불타 죽을지언정 제새기를 덥허 보호하야 죽지 안케하려고 그 뜨거운 불꼿 속에 그대로 안어 잇어서 비록 즘생일지라도 한울에서 품부한 모성애(母性愛)의 직능을 지킨것이다 이는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야 행하신 일의 그림이다 저가 『갈바리』산 우에서 그 팔을 벌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셧으니 이는 당신을 대신하야 죄 우에 떠러지는 천벌을 밧으신것이라 그리하야 당신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것이다

巡査看守(試驗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을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規則書即送)



손에손을잡고원기잇게놉시다!
感氣가들면實母散을服用코速히고칩시다
感冒解熱特効藥
實効散(실효산)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東京市神田區明神下 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
NO.141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3 二二番
六月二十五日부터晝夜 東劇座公演第四週
林仙圭 作 洪水前夜 二幕四場
죽엄으로써위협한災難을通하여본人生의裡面、우러야할까、우서야할까、悲痛을지나치는곳에人生에게는눈물조차마르는最大의悲劇이오는것이다보라! 이悽慘한光景을
洪水、죽엄、人生!!
出演 卞基鍾、李敬煥、洞芝演、宋海天、金英淑、金富林、其他總出演
金健 作 地下室과人生 全二幕
朝鮮의라뽀ー엠、地下室에모힌天才들은그날그날의糧食에도굶주려가며不運에울고希望에불타는가슴을안고다만『사랑』이라는샛밝안두글자밋헤人生行路를旅行하고잇다 野卑한人間의一面相과女性愛가交錯된알구진運命을우리는어떠케보아야할것인가!!
出演 朴昌煥、韓一松、裵龜成、朴英泰、金基成、朴鶴彬、徐玉汀、李淵玉、其他
花山學人 作 喜劇 貸借關係 一幕二場
諧謔滿點의喜劇다운喜劇을보소서 都大體어느편이債務者이냐? 貸借關係가顚倒되는곳에仰天大笑의喜劇이버러진다

浪花館
六月二十五日より六月三十日まで
三回興行 入場料金 四十錢 六十錢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人生のお荷物	一·三〇	七·〇〇	
◀僕の春	十·三〇〇	三·四五	八·一八
◀米國の機密室	一·一五·七	四·四一二	九·一四

血統淨化

악질유전병(惡疾遺傳病)의 자손을전멸 당국에서 법률제정에착수

악질유전병을가진 자손전멸하야민족씨(種)를 더욱우량하게하는것은 우생학(優生學)상으로보면제 국가민족의 장래발전상으로보든지 절대로 필요하다하야 내무성(內務省)에서는 「악질유전병전멸법」 제정에착수하야 방금보건위생조사회(保健衛生調査會)에서멸종법(滅種法)에대한 조사를급히하는한편으로 내무성위생국 구산효일(龜山孝一)씨를 해외(海外)에 파견하야 멸종법을 연구하는중이다 그리고 세계문명국중에서 실시한 나라는정말(丁抹) 서서(瑞西) 미국독일등이게 그중에도 독일、나치세가제일적극적이라한다 악질유전병을 가진사람은 자기일인을위하던지자손을위하던지민족을위하던지 급속히 그병독을 전멸하도록 노력할것이다

매독엔 「푸로다ㅣ」로

이추부의눈물겨운고백을드르시요

◎이세상악마는매독입니다

매독병은 선천후천두가지가잇는대 선천매독(先天梅毒)은 선조상으로 부터유전하야 병독을 바더가지고 나온병이오 선천매독(後天梅毒)은 남녀간불결한성교(性交) 나그러치아니하면 목욕탕침구변소 변기(요강) 갓흔데서 전염하는 화류병인대 세상에제일무서웁고 지독한병이다 한번걸니면 칠팔대(七八代)나무죄한 자손에게까지 유전하야적악(積惡)을할뿐아니라일신의 비참한최후를 맛치게되는것이다 신이끈어지고 코가떠러지고눈이멀고 목이창이나고 등창이나고 사대육신이쑤시고 머리가빠저문드러지고심하면 뇌매독이되야 천치가되고 정신병자가되며 급기야에 생명을 일케되고만다 독일화류병연구박사의 발표에의하면 세게인류(人類)의 대적은 곳매독이요 우량한 민족의씨를 말니는것도 곳매독이라고하니 참두려웁고 끔찍끔찍한 병이다 이병은 전염된후시기와 체질에따라서 곳발생도하고 몃달몃해후에 발생도한다

◎제일긔매독전염병된지 삼사일 일주일내로 신에 조고만하게 뾰루지가난다 그러나 심하지아니한 사람은 납듯하게어느틈에 업서지기도하고 또신두가 헐기도하고 곰기도한다 역시 일주일쯤되면 업서진다 그러나 곳피로들어가서 전신에 돌아버리는것이다 잘못하면 병이전염된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는 일이만타

◎제이긔매독신이나 여자음부에는계속하야 나기도하고 차차가래톳이스고 구미가업고 신열이잇고 골이쑤시고 몸이가려웁고 여기 저기 종기가나기 시작하고 눈이희미하고 머리가 빠지고 얼골에여드름갓치 돗기도하고 몸이느른하고 목이쉬고 코가헐고 붉고 멍울이스고 하야비로서 누구든지 잘알게 된다 물론어러한 종세가 한번에 나는것은 아니다

◎제삼긔매독 병독어 전신에깁히깁히들어가서 번성하게되야 연한 뼈까지(軟骨)파먹게되는 고로 코가떠러지고 등창이나고 목이아조쟁기고 목구멍이 뚜러저서언청이 소리를하고 머리가헐고 눈에백태가끼고 나종에는 멀고 신이돌러빠지고 낭이진물러지고 왼몸이 만창이되고 뇌매독이되어 최후를 맛치게된다 그리하야 자손에게 전염하고 민족을 점점열등(劣等)으로 만드는 무서운 악질이다

이와가튼 증세에의심이잇든지 매독으로 신음하시는분은 푸로다를 쓰시오 푸로다의효능 매독(梅毒) 창독(瘡毒)태독(胎毒)습독(濕毒)선천매독(先天梅毒)감창(疳瘡)후천매독(後天梅毒) 매독성류마지쓰(梅毒性僂麻質斯)약은 환약이오 구갑이거나 위장을 안상합니다

약갑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 중한분은 보통병과 다르니 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문하시오 당일 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이오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代表電話光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매독엔 푸로다ㅣ를 쓰시오

(PROTER)

【가 약】
완고용칠원
중증용오원
경증용삼원

료송방지
선금무료
대금인환
삼십오전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神崎神聖堂賣藥
黃海道海州 宋淳州

市內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仁寺町 富仁藥房
阿峴町 春山藥房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鍾路二丁目 白陽堂

地方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忠南天安邑內 徐光年
咸南端川郡汝海津 鶴仙藥房
咸南永興郡宣興面 嚴龍燾
咸北漁大津 閔泳禧
慶南鎭海 朴基煥
咸南咸興府本町通 三省堂藥房
咸北惠山線水驛前 永生堂藥房

特約店
京城府清凉里町一二九 德仁百貨商會
京畿道仁川府外里 中和堂
同 永登浦驛前 清一堂藥房
同 金浦邑 回生堂藥房
同 始興郡新東面平眼里 李鋼英
同 永登浦 裵振聲
同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瓚
同 開城府都橋市 ハヤシ藥房
同 水原郡鄉南面發安市 金佑鉉
同 江華郡良道面道場里 韓仁奎
同 漣川郡南面華山里 李股傑
同 水原邑 金德根藥房
忠南大田邑大東町四九 朴玎均
同 洪城邑豐農園 李康世
同 成歡驛前安城商店 宋千逸
同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同 公州邑錦町 權明順
全南順天邑金谷里 金禎泰
同 潭陽郡火田面谷城里 丁判燮
忠北清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華信藥房
同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玉山堂藥房
同 海南郡邑內 千珍玉商店賣藥部
全北金堤邑內 趙東泰
同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延鎬
同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同 益山郡王宮面興岩里 金永鑽
慶南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舖
同 咸安郡安義面錦川里 崔禹錫
同 河東邑 濟生堂藥房
同 晉州昭和町 大明堂 金三珠
同 晉州邑明治町 金元春
同 晉州邑日出町一〇九 第一藥舖
同 同 六二 金成藥房
同 同 大黑洋洋堂
同 榮町 ツバメ藥房
同 馬山府俵町 天和藥房 李秀
同 馬山府石町 五行堂藥房
同 釜山府寶水町義宗號 韓明東
同 蔚山郡青良面開谷里一六 孫秀榕
同 居昌邑 章藥振
同 蔚山郡凡西面斗山里 朴慶龍
同 密陽驛前 松山堂藥房
同 南海 華生堂
同 泗川郡西浦面舊坪里 金鍾玉
慶北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朴基憲
同 大邱府京町一丁目一八 大安堂藥房
同 尙州郡邑外畓里 權聖八
同 善山邑本町 金亨燮
同 盈德郡丑山面景汀里 金春淑
同 善山邑內 新生堂藥房
同 佛國寺驛前 金觀商店
同 大邱府達城町三〇 樂入岩商酒
同 淸道郡華陽面松金洞 鄭硃房
江原道金化邑 金化藥源
同 江陵邑內 黃鄉奎
同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金化鳳商店
同 金城驛前 文根
同 原州郡富論面興湖里 馬實在商會
同 平康郡福溪驛前 丸成堂藥房
同 鐵原邑中里 協世均
同 洪川郡化村面君業里 申宗善
黃海道載寧邑內 金鵬商店
同 [illegible]井驛前 金芳
同 鳳山郡德在面赤城里間站 李淳五
同 海州邑北旭町二五七 孔觀契
同 信川郡龍門面福祿里 權五福
同 延白郡彰德里 吳弼浩
同 海州邑內北幸町三六 林官鎬
同 安岳邑 朴俊影
同 載寧郡 朴雲大
同 南川驛前 金容
同 沙里院本町通 秦和堂藥房
平南平壤大和町通 石川赤門藥堂
同 大同郡斧山面中二里 金鮪容
同 价川驛前 全應朝
同 龍岡郡海雲面城峴邑 鄭鳳益
同 龍井里 李亭植
同 安州郡立石市活信藥房 李觀信
同 平壤府南町四一柳原藥房 洪夢龍
同 平壤府橋口町四〇 尹炳寬
平北碧潼邑內 金泓官
同 滿浦鎭香山驛前 朴採瑋
同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金興澤
同 宣川邑內川北洞 福山婦人商會
同 鐵山邑內 安東商店
同 江界郡公北面香河洞 李和松藥房
同 熙川郡邑上洞八五 韓用俊
同 宜川郡川南洞 回春藥房
同 新義州府彌勒洞新義州 麗世藥房
同 東新館驛前 東亞藥房
同 定州郡大田雲鶴洞 胤和藥房
同 鐵山邑內 安東商店
同 雲山郡北鎭市 天壽堂
同 雲田驛前 春山藥房
同 新義州府眞砂町 數世藥房
咸南新興邑內 錫安藥房
同 定平郡新上驛前 春起藥房
同 永興郡古寧面三峰里一四七 金允吉
同 豐山邑內市通義信商店 洪淳義
同 長津郡郡內面上坪山里 姜基泳
同 北靑郡下車日面萬景市 姜完洙
同 新高山驛前 晋惠藥房
咸北城津港旭町 壽榮堂藥房
同 城津港旭町 晋信堂藥房
間島龍井市大通路 永生堂藥房
同 淸津府新岩洞 海東藥房
同 城津郡鶴南面禮洞 李炳秀
同 朱乙驛前 北一堂藥房
同 明川邑明川洞 新盛商店
同 雄基港本町 迎春局
咸南北青邑壽世局 金裕乾
同 北靑驛前 五六藥房
同 咸興府本町 金藥房
同 元山府南村洞二四 至省堂藥房
同 元山府廣石洞一 金元輔藥房
同 元山府 東明堂藥店
同 甲山郡惠山鎭本町惠山堂藥房 岩旭
同 興南驛前九龍里 李昌房
咸北吉州邑內 日天堂藥
江原道鐵原邑中里 壽堂藥房
咸北雄基上本町 協成堂藥房
同 會寧邑大正通 十字堂藥房
同 雄基邑本町 世一堂藥房
同 雄基邑本町三五七 仁壽堂藥房
同 雄基邑本町四〇三 信生堂藥房
同 羅南邑初瀨町一一五 五信堂藥局
同 羅南邑生駒町五七 益壽堂藥房
同 城津邑旭町四一三 餅圖堂藥房
名古屋市南區中山町一ノ一八 萬壽堂
島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平岡吉
安東縣市場通九丁目三番地第四號ノ四 片吳昌

支社代理店特約店特典大增募

全鮮各地에 支社、代理店、特約店을 大擴張하고 今般 다시大特典으로 增募하오니 이조혼 機會를 일치마시고 急先申込하서오 先着者로 決定합니다

詳細는 規定書를 請求하시오 無料로郵送함

特히 支社設置를 歡迎합니다 支社長이되시고 大成功하서기를바랍니다

特約店以外에는 절대로 화리나특전이업습니다

사진—조개줍기

물것의 총공격은 이런무긔로 막자

향수겸땀약겸각가지로유효

늦게아는것만큼손해

벼룩에는 빈대걱정 모긔걱정으로 밤을 해뜩해뜩 발키고 보니 사람의 살이 쪽 빠저서 긔운을 못차리게 됩니다。낫잠으론나 좀 오려을낼까 드러누으면 염체업는 모긔는 나제까지 덤비어 귀찬케 굴지를 안습니까? 그야 모긔장을 치거나 모긔향을 피워도 조치만은 모도다 힘이 들어서 이로 그러케 하기어렵습니다。간단히 모긔를 조출 방법이 잇다면 오작이나 조켓습니까? 아니 그런방법이 업지 안하 잇습니다。어른보담도 애기네들에게는 아조훌륭한 약이올시다。비단 모긔라 벼룩도 못 덤빕니다。비단 낫잠에라 밤에도 조습니다。

(가루약)

유카리 기름을 한돈중이라고 하면 탈크 즉 활석(滑石)을 두돈중 전분(澱粉)을 한량너(四)중으로 잘 섞거서 가루약을 맨들어 놋습니다、그래서 그 가루약을 몸에다가 바르면 땀약도되고 또는 모기나 벼룩의、예방약이 됩니다。왜 그런고 한즉 유카리기름은 마비성(痲痺性)을 가진 휘발질(揮發質)의 물건입니다。그런까닭으로 그런 버러지들이 잘 덤비지도 못하려니와 설사 물리더라도 유카리기름의 수렴작용(收斂作用)아래 그러케 가렵지도 안습니다。원료는 어느약국에서든지 파는데 유카리기름은 한온스에 이십전가량이요 활석이나 전분은 한봉에 십전십오전가량입니다。전분은 보통 갈분을 대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물약)

이소오이게놀 두방울에 조산(醋酸)에틸 수무방울 빙조산(氷醋酸)열다섯방울을 타고다시 유카리기름을 두온스남짓하게와 물반홉을 섞습니다。그래서는 몸에바르거나 뿜어노흐면 그역시 모긔나 벼룩드의 예방약으로 훌륭합니다。그것은 곳 이소오이게놀이든지 조산에헬이든지 모다마취성의향내를 피워서 버러지를 못덤비게 하는동시에 가려움을 끄치게하는 특증을가지는까닭입니다。그뿐더러 그두가지의 약에는 살균력(殺菌力)이 잇는데다가 빙조산의 냄새가 또한버러지를 예방하기에 족합니다。이소오이게놀은 큰 약국이라야 잇고 향료점에도 잇습니다。

물도 될수잇는데까지 증류수(蒸溜水)가 조흔데 사홉병 한병에 십이전씩 팔고잇습니다。

(향수)

이것은 좀 사치스러운 이야기올씨다마는 그러케 가루약이나 물약으로 말고 향수로 맨들 수가 업지를 안합니다 즉 유카리기름 한온스、시트로네라 한온스、장뇌유(樟腦油)차스사시로 한개 알콜반홉좀 못되게 골르게 섞거서 향수를 맨드는것입니다。시트로네라유의 냄새가 장뇌유와함께 버러지를 막아내게 되고 알콜은 살균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단시 시트로네라유는 보통약국에 별로업는것이니까 전문점으로 주문을 해와야 될것입니다。그러타고 하더라도 향수갓슨아조 싸게 먹습니다。사치하다고 말햇다고 그다지 비싼것도 아닙니다。

가정의화

운동후근육통

問 생은금년 이십삼세된 남자로 평시에 전혀 무병하온대 운동을 조곰만 과도히 하면 사용한 근육이 아퍼서 실증이 나오며 한시간가량 운동을하면 약일주일은 근육이 아픔니다 무슨까닭이온지 하교하여주시요 (市內 SIS)

答 누구든지 과도한운동을 하야 근육이 아픈것은 정한리치입니다 한번에 장시간 운동을하지말고 차점차점 시간을느려가면은 습관이되야 큰고통업슬것입니다 아픈근육을 마찰하는것도 약간효과가 잇사오니 운동전후에실행하십시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東益)

우리차지

「시골서오신 우편배달부 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나는 서울 우편국에잇단」
「그럼 이편지가 엇더케 서울로 나차저왓슬까요」
「오늘아침 첫차로 정거장에 내렷단다」
(글쓴사람 박치호)

양산의 손질

◇…◇ 풀센것은풀을죽이고 습한데두어서는안된다

파라솔 즉 양산말슴입니다 이양산은 손질잘하고 잘못하고 간수잘하고 잘못하는데따라(세상의 온갓것이다그러치만)목숨이 길고짧고 드럽고 덜드럽고합니다 그러고 비단양산은 애초에풀을 먹인것은 갈라지기를잘합니다 그럼으로 양산은 얼마쓰다가 손질하느니보다 처음사쓸때부터 손질해야합니다 처음풀기운이만흔것은 쓰기전에 미리솔을뜨거운물에 축여가지고 씨슨다음 왜초(醋酸)를 맑은물에두어방울떠러트려가지고 그것을 양산에 죽죽끼언저 씨슨다음 그늘에말립니다 이러케하면 비단이 갈라지지도 안흘뿐더러 비단에 윤끼가나서 퍽조흡니다 그리고 양산에숫검정이나 때가무덧슬경우에는 『벤진』으로 닥그면 얼룩이 가지고 그얼룩자리가 넓어집니다 그럼으로 그대신고무로 살짝살짝닥는것이 깨끗해집니다。

파라솔을 습한데두면 곰팡이가핍니다 비오는날가튼때 마루에 두는것도 재미업지요 그러니까 나드리갓다오신뒤에는 잘더러서 반드시 양산집에 너어두는것이 조습니다。

開城에서 總會

女子基督節制會

조선녀자긔독교절제회 제칠회총회는 금이십륙일 하오팔시부터 이십칠일오후까지 개성부북부례배당(開城府北部禮拜堂)에서 열린다고한다

動物愛話 ❶

고양이와 거북 (二)

崔秉和

어느곳에 가서 숨어버리는지 누구한사람 아는사람이 업지만 고양이는 잘 알고잇섯습니다。뒤겻뜰한구석에 흙이조금 싸혀잇섯습니다。그곳에서 한자쯤 떠러진곳에 구녕이잇습니다。흙이싸혀잇는것은 그구녕에서 파내인흙인데 그구녕속에서 내년봄까지 거북이 추위를 피해서 숨어드러잇섯습니다。거북은 대개 석자줌기픈곳에서、죽은것과 가티 꼼작도아니하고 잇지만 추위가 더심한때에는 더기피파고 드러갑니다。

겨울이지나고 따듯한봄볏이포군이빗치는때면

『이제 토미가 나올때가 되엿구나』하고 집안사람들이 토미이야기를하고잇스면 거북은 따듯한날 느러느럭 기여나오는데

제일먼저 그것을 아는것은 역시 고양이엿습니다。뜰에서 고양이가 이상스럽게울니다

『토미가 나오지안헛나?』 이러케말하고 집안사람이 모여들엇습니다。그곳에는 거북은업고…… 꿈틀거리고잇는 지흙덩어리가잇는데——그것이 토미엿습니다。반년동안이나 꼼작하지안코 흙속에 파무친 거북은 이러케흙의옷을 겹겹히입고 나오게되엿습니다。

『어서오십시요。』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집안사람들은 이러케들 떠들면서 토미를 반갑게 마지하엿습니다。고양이도 야웅! 야웅! 하고 거북을 발로 살작 건드리면서 깁버하엿습니다。토미는놀로 깨끗이씻기여서 비로소 거북의형상을 갓추이게 되엿습니다。

이러케 토미는 몃번이나 흙속에숨엇다가는 또나타나고하기를 몃번이나 하엿는지 알수가 업섯습니다。동리에서 제일나히 만호신 여든몃살되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드르면 토미는 분명히 백스므살이나 되엿스리라고 하시엿습니다。

그해。——

시월이되엿는데 토미는 흙구녕속으로 갈려고하지안코 부억에가 꼼작안하고 잇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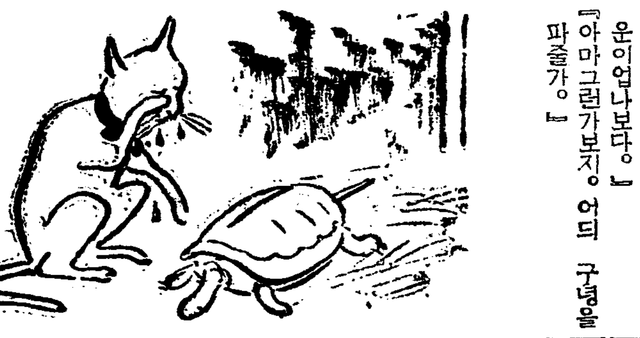
『엇전까닭일가?』

『금년은 아즉 춥지안흔가 보지』

이러케 이상스럽게 이야기하고잇는 집안사람들이 추워서 솜옷을 입게되엿는데도 역시 토미는 부억에서 꼼작안하고 잇스므로 모다들 변스럽게 역이엿습니다。고양이도 이상스럽게 생각하엿는지 외종일 그겨를떠나지안코 꼭 직히고 잇섯습니다。

『이제는 너무늙어서 땅을팔기운이업나보다。』

『아마그런가보지。어듸 구녕을 파줄가。』



그래서 연한땅을골나서 구녕을기피파고 그곳으로 토미를 데불고갓습니다。그러나 토미는 드러갈라고 하지안헛습니다。그러케 조와하는 푸성귀를 가지고와도 먹지를안헛습니다。

『이거 큰일낫구나。아마 이거북이죽을날이갓가워나보다。』하고 손녀딸은 벌서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여페사람에게 무럿습니다。

『아마 죽을때가 되엿나보오』

『어구! 불상해라。정말죽으면엇더커나。』하고 손녀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하엿습니다。

고양이도 슬픈듯이 잠잣코 거북의 등더리만 뚜러지도록 바라보고잇섯습니다。

그날저녁때——

거북의일이 몹시근심이된 손녀딸은 나제 거북이 드러가게 땅을파노흔곳에 가만히와서 보앗습니다。사면은어두워저서 몰을것을 잘알아볼수업스리만치 어두워잇는데 그어둠가온데 허연것이 히미하게 보엿습니다。

갓가히가서 자세히보니깐 그것은 고양이엿습니다。고양이는 낫부터그때까지 거북의겻을떠나지안코 잇섯든것입니다。잇다금 압발을드러서 거북의 등더리를 가볍게따렷습니다。그래도 거북은 조곰도 움직이지 안는모양이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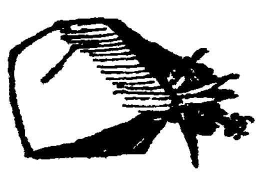
손녀딸은 이것을 자세히 내려다보앗습니다。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가엽기도해서 그대로 도라갓습니다。

그이튼날아츰 일즉이 부억에서 슬픈듯이 애처러운듯이 부르짓고잇는 고양이의 우름소리가들려왓습니다。그소리를 제일먼저 드른사람은 이집손녀딸이엿습니다。손녀딸은 불길한소리나 듯는것가태서 벌덕일어나서 급히 부억으로 뛰여가보니깐 토미는 돌과가티 단단하게 구더진채사지를 쭉—뻐덧습니다。

죽은토미와 고양이는 정다운동무엿습니다。그러나 다똑가튼고양이는 아니엿습니다。토미의주인이 하라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손녀딸로변한거와가티 동무고양이도 수업시변햇지만 토미는 어느고양이든지사이조흔동무가되엿습니다。

혹시 거북은 다른고양이를똑가튼고양이으로만 알엇는지도 모르겟습니다—(第一話終)—

連載小說 옥심이【八】



金廷漢 作 安夕影 畵

남편은 옹둑하게 모으고세운 두정강을

『아니、병이 모질다기보다、원수의 목숨이 모질어서 그러치! 그만 뒤여젓스면 조흘것인데…』

『무슨 말슴을 그러시오? 목숨이란것은 한울에 매인것인데!』

『한울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에 매엿다해도、쓸데업는 목숨이면 살아서 뭘해?』

하고 남편은 뼈만 남은 주걱렴을 떠죽거리며 말소리를 저옥이 노피다——

『차라리 죽고 말일이지。이 이상더 집안사람들과 내자신을 만시식하고 서름보이고 고생식힐낫지 또 잇겟는가?』

『그러치만……』

『그야 생각할사록 맘에 걸린다가보다 한되는것을 말하자면 이루다 들수가 업겟지만、낫지안흘 병인이상、살아서 그공못갑흘 바에야 차라리 죽어서 걱정이나 덜어줄일이지!』

옥심이는 말문이 맥힌듯이 잠잣코 남편의 입만 어이업시 바라본다。

깍지낀 팔로서 옥여안고 아랫목쪽에 우두머니 안자잇슬뿐좀처럼 말이업다。옥심이는 이옥히 남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짜정 궁금이 넉이다가 마침내 자긔가 먼저 입을 뗀다。——

『인제 좀 나어요?』

남자는 잠잣코 고개만 두어번 가로 흔들어 보인다。

『왜 그러케 약효가 잘안날까요? 돈든 약도 업는 터수에그만큼 씻거니와 위선 아버님과 저가 캐여드린 손녀삼뿌리만해도 몃집으로 셀텐데。』

『글세 말야……』

남자는 떡심풀린 입맛을 다신다。

『약도 약이지만 그동안 당신이며 집안사람들이 겪고 무릅쓴 공이며 서름인들 여북하겟소。모진놈의 병도 잇지!』

옥심이는 한쪽정강을 세우고 안즌채 비둘기가티 부드러운 소리로서 중얼거린다。

『그러나 목숨이란 참 모진것이다。』하고 남편은 말을 잇는다。『나도 이놈의 병이들기전에는 문둥이를 볼때마다 그만야죽고 산다고 욕을 햇드니 사실 내가 문둥이가 되고보니 그것들의 마음을 가히 알겟거던。문둥이의 목숨도 성한 사람의 목숨과 마찬가지다! 그의 생각도。세상이 천대할사록 살고십흔 생각이 더 강하게 나든구나!……그야 나도 여러번 독약을 손에쥐어보기도 햇다마는 그것다뜻대로 안되드네。사람이란 명일에 속아서 산다고 옛말도 잇지만、문둥이도 그러케 산다할까 오늘이나 나을까 래일이나 덜할까 하는사이에 나도 어느듯 오년이란 긴세월을 자개속의 게가티 살아오며 결국 그대의 산세까지 망처놧지만 지내고보나 모다가 내잘못、모진목숨의 죄다。……그러나 인젠 그라멀지 안흘것이다!』

남편은 사죄나 하는듯이 안해의 손목을 잡으며 머리를 숙이고 말을 끈는다。

지긋지긋한 침묵——。

옥심이는 못이기는듯이 손목을 잡힌채、엉쇠판을 겪거오느라고 애면글면 터덕거린 자최가 양상하게 남은 얼골에 또 한줄기의 눈물을 드룬다。

『옥심이!』

이윽고 그를 처다보는 남편의 눈에는감작이 이상한 비치얼른 지난다。제 사내면서도옥심이는 불안한 생각이들엇다。

사내는 약간 떨리는듯한 팔에 연방힘을 주면서 안해를지긋이 단엿다。옥심이는 황당히 물러안즈면서 손을빼려고햇다。

『실호냐?』

남편의 소리는 불시에 커젓다。마치사나운 증생가티。그리고 옥심의 남은손을 마자 잡으랄때 뜰에서 공칙히 수복이란놈의 울음소리가 엉엉 들렷다。

그것을 다행으로 옥심이는올며 먹을번한 겨자를 배앗듯이 사내의 손을 겨우 뿌리치고 박그로 빠저나왓다。

『왜 우러?』

옥심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눌르면서 수복의 여페 닥어섯다。

『동무들이 때려요。』

수복이는 우름반、말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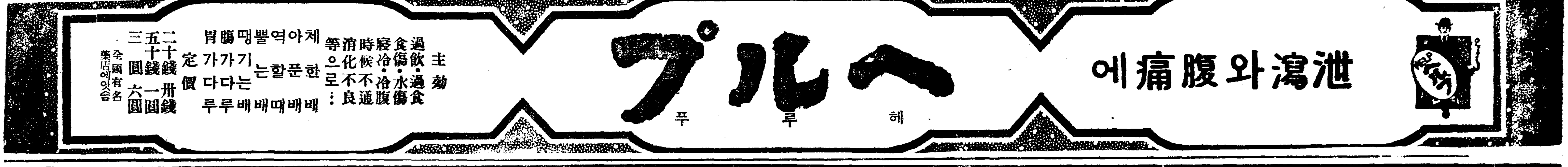
『왜——?』

『문둥이 자식이라면서……』

옥심이는 그만、말은 커녕、숨이 탁맥혓다。

『오냐、그러타! 네애비는 문둥이고、여기는 문둥이 사는 집이다。어서 가거라。다시는 모다 내눈에 보이지 말어라!』

마당에 잇는 사람이 식겁을 하도록 문을 부서지라고 열어제치며 외오치는 남편의 고함소리다。



文壇抗辯 ⑥

文學은—— 拋棄될것인가

李軒求

文壇의時事問題를 取扱하는文壇時評文는文藝時評에對하야 우리는적지아니한 不平을가저본다 勿論 朝鮮과가티 文壇이活氣를 띄지못하야 文壇에關한現實的課題라거나 根本的課題가 旺盛히 提出되지못하는

事實 한地域에잇서서는 이것도 할수업다는 默認만으로 끗날지도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程度의期待쯤은 가저보고십다 卽 文藝批評에關心하는이가 좀더 具體的이요 直接的이며 目前에切迫한問題를核心을 붓잡아서로眞摯한態度로서 이를論究하고십다는것이다

假令 一例를들어말한다면 作家의作品內容의 一般性이라던가 表現技術에 잇서서의 作家의關心이라던가 또는 作家의生活問題 또는 作家의社會的地位라던가하는 日常的이요 部分的이면서도 極히重要한 課題에對하야 評家뿐아니라 作家側, 또는 社會思想家의 率直하고도 忌憚업는意見의陳述쯤이 잇슬수잇지아니할까? 이러한點에 對해서는 直接 그表現機關을 運用하고잇는編輯者의 具體的플랜이 잇기도하겟스나 좀더 이方面에對한 關心과努力이 必要할것이 아닐까?

그리고 朝鮮文壇과 國際的文壇과의 接觸에對한 새로운 觀野의 展開다。日本을하더래도作家들中에는(正宗白鳥와가튼 老壯作家까지도)그들이 現世界文壇의動向에對하야 思潮上으로 또는作品으로새로운思想의 攝取를爲하야 熱心으로서 이에努力하고잇다 더욱 外國作品의紹介와飜譯이 나날이旺盛한中에서 그들은 언제나 뒤떠러지지아니하는 世界文藝의水準을 目標하야 精進한다, 이點에잇서서 우리가느끼는苦痛과 悲哀는 實로民族的이오 全體的이다。

最近과가티 자못 外國文學의 輕蔑—이러한態度를 崔載瑞氏는 自身의입으로서 諷刺(?)하고잇거니와! 이마치 海外文學派의機能을抹殺하랴는 不詳스러운態度로서 함께度外視하랴는傾向은 假使 海外文學派라는一群이無能하다고치더래도 이것은 分明히 自己의無知와 偏狹된自滅作用밧게 안될것이다。作家나評家나 다함께 그어떤 새로운創意를爲하야 애끼지안는熱誠과努力이 보이지안는곳에 文學의成長은 全然可望할수업는것이다。

다만 달마다 新聞雜誌에 몟個의作品이나評論이실린다는 現象的事實만을가지고 朝鮮에도 文學이 잇스며 우리는 文學을 爲하야 一生을 바치다는壯談과 自負心이 생길수잇슬것인가? 勿論 우리는 朝鮮의 文壇에서 活動하는 이들 大部分이 生活難이라는 直接的困難과 또 社會的重壓때문의 純粹을맛고잇다는것을 모름도아니거니와 日前 어느日文新聞에 世上이도모지 滋味를지못하니까 文學그自體도 滋味업서 보인다는 말을 마치日本에 外國作品의飜譯紹介와 外國映畵가업다면 우리는 文學에對하야 全然關心하지안켓다는 어느評家의말에 그를自嘲하면서副作한 一流作家의 辯明으로 率直히告白햇다

이 一文을읽으면서 實로 우리가 朝鮮서 文學이라는世界 文學이라는雰圍氣가 거륵하고偉大하다는것을 分明히 認識하고잇는것은 우리가 조곰이라도 外國作品을 涉獵할機會가잇슴에서부터 느끼여지고 잇다는것이다 이것은 實로 事大思想의弊害일까? 만일 朝鮮에 새로운 一切의 [illegible]的文化封鎖가 實施되야 一切의 外國文化의 輸入과 接觸을 不許한다면 그때우리

生活 이 多少滿足하여 진다는物質的有利가잇다고 하더래도 大部分의 良心的進步的 知識階級은 自殺 自殺을 안하다면 發狂失神하고 말것이다 一見이사리 解決할수도잇고 否定할수도잇는 世界의 文化思潮乃至文學藝術이 實相은 좀더 아니 그모든것을 輸入攝取하여야 하겟고 그모를 輸入攝取에서 우리는正當히生存할수잇다는것을 切感하지안흘수업다 그러나 朝鮮은 왜 이러케도 自己窒息의 自我封鎖를 자랑삼아 큰소리치고잇는것일까?

이런때 劇藝術第四號에실린金珖燮氏의 飜譯劇의生命은 그것이 多少激烈한 論調에 지나친이야기는 하드래도 月前 崔載瑞氏의「戶外에는外國文學硏究家」라는 要領不得의 低迷한 雜言에比하야 分明히 한層의 義憤에찬論策이엿다

實로 最近의 朝鮮文壇과가티 假令 創作月評과가튼 世界에 그類가업會 만대려주의的 抽象的文句를羅列에 比하야 「로맹 롤랑」의말한바 「門戶를開放하라 그리하야 新鮮한空氣를 마저드리자!」라는 독베ー로벤序文中의一句를 心切히

感銘 하는것은 何必 筆者一人뿐일까? 文學에 獻辭냇다! 이러한 痛切한 心境의告白을듯게되고 차차文學이무엇인지 모르게된다는 하소연을듯게된 오늘에잇서서 文學을抛棄한다는것도 一理가잇는것이오 生活을爲하야 돈을모아야하겟다는 切迫한事實로 首肯될는지 모른다그러나 이어는것이다 정말 오늘의 朝鮮文學을 救하는 方途는아니다 果然朝鮮文學을爲하야우리는얼마나 의미하고잇스며 싸호고잇는가? 抗辯이 蓄積되기를빈다(끗)

言語現實에對한片感

시도기等을 미루어서 시동까지

(二) 方鍾鉉

더욱어 語의끄리 "그러이" "조호이"들과가티 "오라이"로 되어 올라는말을 이와가튼 形式에 마추워논것가티 되어노코보니 더一層朝鮮語와 틀리업는다정한

「語」 慾이 잇서진다, 거리에 나가면, 아니 들을수는업는 一語이다。

이들의말은 다 이時代를 中心하야 생긴말로서 우에두말은 根本 日本商人이 처음으로 팔게되것이라고推測케하는것은"ㅈチ떡""マメ콩"等合成語의 構成個語로 밀우워알수잇다 何如間 將次는 이말들의語源이 未詳다고하야 머리써일 語學者가 멧사람이나 잇슬까하는 멧年後에 일어날수수운悲劇이 미리부터 생각키운다。

우에 말한 두마디의말도 다 한時代的産物인만큼 그實物이存在한以上 적어도 그名稱은 保有해갈것이다 이리하야 오랜時日을 經過하면

「堂」 堂한古語로서 그存在價値를가지고잇슬찌 모를다 이제 問題를 조곰 달리하야 우에서 말한것이 言語가 會話우에서 나타나는 現象을 말한것이라고하면 아래서말하고저하는것은 言語가 文字에서 밧게되關係를 생각해보려고하는것이다 내가 古書 그보다도 오래되諺解書를 볼때마다한번 硏究해보는데 充分한 큰材料를가진 一問題이라고 늘 생각되는것이 바루 우리글의 표書그것이엇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材料도 蒐集하는 中이지만 그 모혀지는 여러가지 問題의 副産物로서 一奇現象을 나는認定치안흘수 업게되것이 잇스니 그것은 至今까지 一般에게 물리워지는되시옷이라는것이 日本말로는 單純한시옷이 아니고 다시말하면

「硬」 音 或濃音이 아니고 되시옷이시옷에다가 硬音을 附한 스或은시로 發音해진 그現象이 잇다는것이다 먼저 그例로 諺하여보면

떡(餠) シトキ

뜸(苦) シトミ

땅(地) スタグ

이와가티 꼭꼭 그字를 分離식혀 假名으로써 表示하엿스니 그바침도"ㄱ"에"キ"를쓰고 "ㅁ"에 "ミ"를 달엇스며 "ㅇ"에"グ"를 바친것이 分明하니 이것이 그母音의對照와 아울려 다만 한偶然한事實로만 보아버리기에는 너무도 그事實의 明白함이 큰것이잇지안흘가한다 더욱이 그豐富한

『例』 證을 引用하지못한 缺點이 잇다하여도 그러메도不拘하고 그서루의 맹그러진組織이 그처럼 法則的으로 對照되어진데 對하여서는아모리하여도 一方語의 源語라는것을 否認키困難케 하는것이잇지안흘가한다 여기서 한번더이 事象을 分明히 考證하기爲하야 우리말에 가장만히 씨워지는말로서 되시옷을 가진字를 차자보앗다 그러나 別로 큰例證이 發見되지안허서 斷言키는 어려우나그러나 퍽 답답하든문제가 이로因하야 解決이되어 매우 시원한것이 잇스니 그것을 내가 어렷슬때부터 勞働場所에 가기만하면 오래이 귀에 듯게되든 말이나 다른말이 아니고 바루 "시동"이라고 하는 그말이다

이말은 相當히 오래동안 적어도 내가

「普」 通學校時代以來近日에 至하기까지에 이것이 果然 日本語이냐 그러치안흐면 朝鮮말이냐하는 一疑問을 가지고잇든 그런말인만큼 늘 機會잇슬때마다 解得해보려고 하든것이엇다 그러든中에우에와가튼 事實이 發見되어 이것을 가지고 땅을 스다구로 뜸을 시도미로 떡을 시도기로 하는形式에 비치워 시동을 밀우워생각하면 조곰도 疑心할 餘地업시 시동은"동"으로 바꾸어쓸수잇는것이다 그와가튼 結果를 엇고보니 其實 시동은 日本말도 朝鮮말도 아닌것이 되고마다 卽 日本사람은 이것이 朝鮮말인줄로알고 朝鮮사람에對할때에(내가 至今까지

「注」 意하건댄 日本사람 相互間에서 使用하는것은 못보앗으므로)시동베라바세기하는것이지만도 朝鮮사람들은 이것을 들을때에 單純한 朝鮮語로만은 들리지안흐므로 아마도 이것이 勞働綴에서 쓰는 日本말인가보다하고 朝鮮사람은 日本말인줄로알고 쓰게되어 結局은 이것이 勞働場所에서 생겨난 朝鮮말도아니고 日本말도 아닌 한中間語가 新造된것임에 틀림업다

女流隨筆

裏腐草 ③

劉如玉

不言不語

사람은 참異常한 存在다 말을눈으로하고 소리를귀로듯는才操를가젓다 눈으로하는말을秋波라고한다 달콤한말이다 不言不語中에 녀려히내意思를 通徹한다 오히려지나칠程度다。

또 살이소리를 듯는다는말은 例를들면 몸이선뜩하기에보니까 咫尺에서배암이귀에가고 웃속해서보니 숲속에범이웅크리고안젓드라는等이 그말이다

소리업시소리를듯고 말업시말을한다—얼마나妙味가津津한말이냐 여긔는黙의所在다。사람이요 엇지孤獨을듯기랴 萬象이나와가티하거니!

無有! 靜寂!

×

釋迦는菩提樹下에서 基督은曠野에서 마호메드는 沙漠에서自然으로더부러말하얏고 太公은渭水에낙시대를드리우고 孔明은南陽草堂에잡이가펏섯다。엇지無心함이엇스랴。東方의博士들은별들言에게길들고 金庾信은石窟속에서들음이잇고 善德、眞德兩主도 다自然으로더부러말을한이들이다

×

바람이울고 바다가뒤집히고, 하늘이문허지고 山이솟고 猛獸가닷고 새들이쪼긴다。

深更기픈밤에 고요히안저도사 무엇을말하는가!。

蜜月、門月

花朝月夕—달은저녁달이다。저녁이아니고는 달을情趣가업다。언제나달이야마찬가지지만보는者의 關心이달으다。初生달, 半달 왼달이보기(形)에달으고, 明月、霽月、晴月、秋月、寒月이 생각(情)에달으다。

正月보름달은豐年달이요。七月旣望달은詩興을도두고。八月한가위달은 님그리운달이요。太白의노든달은, 슬업시는못놀러라。

그러나 그實에서나 量에서나 달에야아모變動도업다。前者는客觀的形態요 後者는主觀的情勢일뿐이다。

×

달中에도달은 蜜月! 祝福바든달이다。누구나다누리지못한다는그것이遺憾이다。저달이無私하듯이, 이달도그랫스면!

다달이 달보는 달이언만 달보는 달은 蜜月의달 人倫의 樂事가 이에서 더하랴.

×

물속에 잠긴달은 水月, 재넘어 걸린달은 山月이라고 부른다。그外에 또 여기 異常한 달하나잇스니 『門月』그것이다。무슨달일가?。私情이 업는 달이니 집집마다 門마다 차저든다는 뜻이냐? 참, 그래—달은 움막의 들창에도 田家의 樂門에도 王宮의 殿閣에도 다가리 차저온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달은 『門안에들』 卽 『閑』을 가르치는 말이다。月은 月宮의 姮娥를 비김이냐 무삼 緣故로 門안에 가친 네가 되엇느냥 萬한 하나꾸다。閑은 閑—을 이閑字다 울안에든듯(隙)치나門안에닥이나 閒暇야하겟지。

有閒階級! 有閒매당!

胎夢에범을보면 아들을나코, 배암을보면 딸을낫는다고한다。너도남의딸이되여서 그러하냐。궁게든배암이나 무엇이달으랴陰慘하다。

閑居—窒息

새벽네時다。물장사의 물장사의몸지게소리가들린다 어멈이일어난다 구루마소리가난다 電車는 軌道를간(隙)다。豆腐장사, 미나리장사가간다。 빼걱빼걱, 월각달각, 우르릉, 뿌ー빠ー, 와자지걸, 떠들석, 素端이다。모다 動하다, 일한다。學校로, 市場으로, 工場으로 田園로 일하려간다。

아아, 괴롭다。無限한苦痛이다 이것이모다내게刑罰갓고, 내몸에 챗직이다。

『彼女여! 아처이다 왜 일줄을모르드냐』

『내몸이甚히괴롭다 가슴이 답답하고 四肥는늘어저 거두지를 못하겟다』

『누가너를저 傷하얏스며 누가 너를밟아넘어트리드냐』

『아니다。어서 門비장—(閑)—을벗겨다오 나는이좁은 속에서 窒息이되엿섯다』

漢詩

綠陰 押鶯 桐岡 考選

佳作五之五 樓下町 孔在煥

樹戴清暉積翠生
中開大道入秦京
始知碧海翻空去
更訝青煙滿地縈
濃覆路傍堪繫馬
爽連山谷始聞鶯
桃紅李白何須羨
十日繁華片夢輕

貧困과苦難의作家

고리키ー의生涯와藝術

그의突然한訃報를接하고 ④

咸大勳

이와가티 飮食物이 낫브고 空氣가 不潔한 製菓所에서고ー리키ー는 오래잇슬수가업섯다 그것은 첫재로 고ー리키ー의健康이 衰弱한것이 重要한 原因이엇다

그리하여 다시放浪의 나그네가 되여어떤때는 下陸人夫로 또어떤때는喜집하는 木工으로 모ー든艱難辛苦를참어가며 或은볼가江流域으로 或은 黑海의 沿岸으로 流浪하엿다 그동안 그가 體得한 實人生의 知識은 모두괴로운것뿐이엇다 飢餓 추위 또는더위… 이리하여그는 집도업시 녀름은 平野에서 겨울에는 地下室에 避難하여겨우 그날그날의 生을維持할뿐이엇다

그리든끗테 그는一八九八年 絶望과悲歎속에 피스톨自殺을 企圖하엿다 그러나 運命은 또 그를괴롭피엇다 彈丸은 肺로 드러갓스나 急所를 돌코 나가질안엇다

그러나 이厭世的인 고ー리키ー의心境은 物質的壓迫뿐만이안이엇다。人生의 平凡하고 單調한것을 自覺하고 이것을 깨치려는 생각이 또한 焦慮懊惱로서 그를 괴롭히엇다。그러치만 自殺할수 쪼차 업는 그에게는 다시 살려는慾求에 불탓다 健康은 곳 恢復이 되여다 그는 다시 새로운 心境으로 蕎麥場裡에서 그의 努力과 精力을 發揮하엿다 그는 生活의 길을 차저 林檎行商人이 되엿다 그러나 이 行商은 고ー리키ー에게 何等의 興味도 주지못하엿다 그리하여 그는『차리친』으로가서 鐵道의 信號夫가 되엿다 그해겨울을 거긔서 보내고 그는 여름이 되자 그곳을 다시 뛰어나와 放浪生活을 하엿다 이러케 다시 放浪의 길을 떠난 그는 一八九一年 徵兵檢査를 밧기爲하여 故鄕 『니쥬니노브고로드』로 도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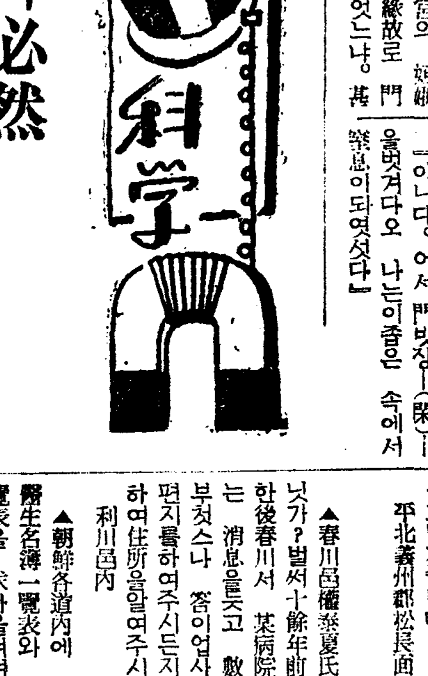
그러나 不幸인지幸인지 그는 피스톨自殺의傷痕때문에 不合格이되엿다 이리하여 그는 다시 生活의길을차저 勞働하지안흘수가업엇다 그는 크밧스(飮料)行商을시작하엿다 이것을그는 下級勞働者에게팔엇다 그리는동안 그는 이地方에잇는『라ー닌』이란辯護士의 好意로 그집에서 잇게되엿다『스무일린』가그의 最初의 恩人이라면 이『라ー닌』은 第二의 恩師일것이다 그主人은 敎養도잇고 또同情이 잇슬뿐더러 寬大한 로시아 上流紳士이엿다『고ー리키ー』는 守衛이엿스나 主人은 그를書生으로대로는 弟子로써 때로는 親舊로 對해주엇다 그리하여 때때로 書籍도 貸與해주고 理論을또 指導해주엇다 이러케되여『고ー리키ー』는 여긔서 當分間 逗留하면서 工夫하게되엇다

이땅에는『아스트라한』地方에서가리 절믄學生들과 親交를하여 그들과가티 고ー리키ー는 當面의諸問題를 討論하엿다 때로는그들과 激論까지하얏다

더구나 그는 그들學生보다도 過激한思想을가젓슴으로 그들靑年學生間에『오래이것은兄弟』라고 적잔은 歡迎을바덧다 그뿐아니라『新星의出現』이라고 崇拜를바닷다

그러나 그에겐 가슴에참을수업는放浪性!또『智識階級가운데서 親近性을가질수업슴을 늣기고 그는 다시그땅을떠나지안흘수가업섯다

『나는智識階級에게 이런말을 해주고십다 너희들은 國家最善의 國民이다 그러나……大體너희들은 나라를爲해얼마나 일을햇느냐! 人生에對하여무엇을 주엇느냐』하는 一言! 그것을그는後年『파마·가르데ー엡호프』作品에도 석지만! 이리하여그는『라ー닌』家의 食客노릇을淸算하고 다시放浪의길을 떠낫섯다



偶然과必然

그理論的出發과歸結

(四) 鄭槿陽

偶然文學論을 提唱하는 사람들은 自說을 擁護하기爲하야不確定性原理를 引用하며 다음가티말하고 잇다 그들의말을들으며 이것을생각하야보자。

『必然思想에 拘束되어잇는限우리들은 創造的氣力을 일허버리고만다。다시금 現實世界를 바라볼때 우리들은 거기

不 可思議가 가득차잇슴을 볼수잇다 必然論을 陋持할때 거기는 何等의 發展도 希望도업다 創造와 流動을가저오는것은 偶然論일뿐이다 우리들의 思想을 偶然論으로써 交代식혀야한다

우리들의 歷史도 一生도 한번이라도 豫想과가티 움즉여준때가잇느냐。우리들의 生活이必然의法則에 依하야 움즉이고잇다고생각하는것은 한個의 妄想이겟다。

偶然論은 可能性을 밋는哲學이다 人生自身의 不可知, 無限의幸福과 不幸에놀라는 思想이다 偶然이기때문에 우리들의世界에 對하야 希望과 恐怖와未知에의 探究가 용소슴친다。如何한法則도 例外업시는 成立할수업다。우리들은 일즉이 千古에 互하야 變함업는法則을 알지

新刊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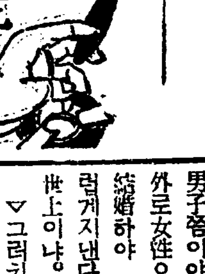
▲東京朝鮮民報 第三十二號發行 所 東京市芝區田村町四ノ九東京朝鮮民報社 振替東京四六一二番 定價一部五錢

▲東洋實業 六月號 本社計畫特輯 日本內地三都訪問 寫眞集 發行所 京城府驛前ツウルビル東洋通信社 朝鮮事務所 振替京城三四一九番 定價十三錢 送料共

▲家の敎育 六月號 發行所 東京神田一ツ橋 敎育會館內 家の敎育社 振替東京七五九六五番 定價十錢

▲前線 第二十九號(月刊) 發行 所 京城府慶雲町八八 天道敎靑年同盟本部 振替京城一六九四七番 定價一部三錢

▲正音 第十四號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一五二 朝鮮語學研究會 振替京城九〇二〇番 定價 送料二錢



▲朝報愛讀者中 漢醫學界權威者의住所를 아시는이가 게시거든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면 謝禮文과同封하와 郵費는返還해드리겟슴니다 生이病中이온바病始初라든가 症狀은 適確히잘알고잇사오나 무슨藥을써야할는지를 相議하랴이오니 本人되시는이가 直接住所를 알려주시면더욱고맙겟습니다

平北義州郡松長面金剛寺 朴三義

▲春川邑權泰夏氏여 安寧하십닛가?벌서十餘年前桂谷서 작별한後春川서 某病院에勤務하신다는 消息을듯고 數次書信까지도 부첫스나 答이업사와답답합니다 편지를하여주시든지 社交欄을通하여住所를알여주시옵기伏望

利川邑內 柳基哲

▲朝鮮各道內에 散在한 漢藥醫生名簿一覽表와 藥種商名簿一覽表를 求하올려면 어대서求하올는지 仔細히 下敎하여주시기를바라나이다 安東縣一讀者

▲煙草及小雜貨商을 讓渡하실분이 잇사오면 社交欄을 通하야알게하야 주십시요 卽時가서 뵈옵고 相議코자하오니 住所를 仔細히 알게하야주시옵소서

▲音樂愛護家諸氏께드림니다本人에게世界歌曲集『一圓五十錢品』이 잇사오니 同價格의歌曲集이나 春園作小說『그女子의一生』後篇』과 交換하실분이게시면 直接通知하야주옵심을바랍니다

黃海道延白邑 康孝燮

▲醫療機를讓渡하겟슴니다 特히紫外光線機電療機附屬品等一切입니다 書信은 左記住所로

江原道鐵原郡北面外鶴里西水浦 高岩生 李觀道

▲여러분中에故金奎鎭(海岡)先生의令胤이關係하는 書畵硏究會의住所를아시는분이게시면 本欄을通하야 下敎하야주십을仰望하나이다 市內답십리

▲楠亭의李基善君이여 前日來雄時失敬만이하엿소이다 그동안健康하시여執務에 精進하시옴는지요 高兄에게도 問候하여주시기바람니다 遂安栗界雄洞 金碧農

▲中國北平者를 硏究하시는분이게시면 日本語(標準語)로交換敎授하십시다 書信으로通知하십시요

市內新設町一四六ノ一二 金東旭

▲大正十四年(乙丑生)陰四月二十日에出生하엿는데 陽曆으로五月幾日이오니지 讀者諸賢中에서알려주시면感謝하겟슴니다(前報誤)

苑西町 洪白石

性器缺陷과 家庭의危機

귀염밧는男子! 버림밧는男子!

▲世上에는 表面上남과

性의絕對性

가리高貴한男子가、結婚하야 妻에스롭을밧고、不倫行爲나 離婚의悲劇을出演——

그뿐이라、外貌가醜하야、그런男子쯤이야、하는程度의男子가案外로女性으로부터 寵愛를바드며 結婚하야 夫婦사이가조코、남부럽게지낸다、——어얼마나矛盾된世上이냐。

▽그러치만 無理한汚點이잇다 누구든지性生活에男女關係의根幹이되는것을理解한다하면一切의不合理는곳解決될것이다。率直하게말하면性的滿足을 給與하는男子는無條件으로조와한다。

그것이안되는男子는 最後에반드시서름을맛게되는것이다。

戀愛와性

▲戀愛는性生活의前提인것은 精神的慾求인바, 한番性生活에옮기게되면 戀愛時代보다도 더욱精神的, 生理的兩方面의 慾求를 어더비로소 人生의맛을 알게되는것이다。

▼그런데 男子의性器發育不全乃至機能障害때문에 健全한性○이 通치못할때에는、男子自身의不幸은勿論、相對者에 滿足을주지못하며、精神的으로는 얼마나相思相愛하는사이라도、어느듯愛情이 薄하야、乃終에는 所謂不倫의恥辱—離別의悲哀를演하게되면 男子로태여나 이처럼不幸한일은업슬것이다。

男子의魅力

▲흔히男性的이라하는 말을使用한다 卽元氣潑剌、明朗快活하야 鬪爭的覇氣잇는것을일흠이다。

이것이 近代女性의 魅惑과憧憬과의標的이며, 이런것은 勿論健康의表象이지만、一面또한 生殖腺『호르몬』(內分泌)作用에 基因되는것을 이처서는안된다

▲生殖腺『호르몬』은 오직生殖機能을促進식힐뿐아니라『綜合호르몬』의 交互作用에依하야、모든機能에 뺄수업는役割을하며、全身活力의 養源이되는것임으로써、性호르몬이 旺盛할사록 健康하며 男性的要素에 豐富한素質을 갓게되다、이生殖腺『호르몬』의 産出을 促進식히는것이 卽生殖

○機能이며——卽 體力、腦力의 優秀를 證左하는게이라하더라도조타。

性器不全

▲그런데男子로서 性器發育不全(短小、彎曲等)때문에 滿足한性行爲를 遂行키難한분、또는 不自然行爲와 房事過度、其他病的으로 生殖○機能障害(陰萎、早漏、遺精、夢精)의 缺陷의분은 生殖腺『호르몬』의 內分泌이衰하야 體力的으로나 性格的으로 男性으로서의 要素에缺하야、妻帶하는資格이 업슬뿐아니라、體力、腦力이함께 萎縮하야 進取的氣性을 일케되면、處世上到底히 成功榮達은 바라기어렵다。

▲그와가튼분은世上落伍者로서참으로가엽스며、性器缺陷에對한物理療法의劃期的發明으로서完成된것이 卽日獨佛專賣特許『ホリツク眞空水治器』이다。

唯一療法

▲本器의效用에對하야는、醫學博士五十餘氏가 實驗證明한것이다。그作用은 眞空吸引力을 應用하야 衰弱한陰○에 血精을 促進식혀 水治法의併用과 아울러 不活動性의細胞를 活動體가되게하며 同時에 理學的으로 發現하는 엔쓰딩作用에依한生○器神經의復活을 식하며 性호르몬의 産出을 旺盛케함으로써 機能障害를治癒식히는 健全潑剌한生殖機能에更生식히다 또한血液의流集과 細胞의活動에 依한短小性器의組織을 復活식히며 發育을促進식히는 効가著大한것은 從來의幾多한實例에徵하야明確하다。

▽生○器發育不全——決코悲觀치말라 機能障害에苦憫하는분들은——失望치말라、速히本器를求하라、自宅에서손쉬이남몰내治療를할수잇다 光明에의第一步를밟우라 젊은분일수록効果莫大 一日이라도猶豫말고 治療에着手하야 남과가티男性資格者가되라。

左記의것을注文次第急送함 더옥詳細를아실여는분은 藥書申越次第

圖入說明書 秘密送呈

日·獨·佛專賣特許 醫學博士五十餘氏 實驗證明推奬書 博覽會名譽金牌受賞

ホリツク眞空水治器

定價金五圓 送料內地二五戔 滿洲五五戔

偽物 効果不完全のニセ模造品あり 必ずホリツクの商標あるホリツク眞空水治器をお求めあれ

包莖(짜지안코自手로秘密히形成되는) 登錄商標 ホリツ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內地一五錢 植民地四二錢 代金引換小包は十五錢增し 使用說明書添付匿名で密送

合資會社 東京新療法研究所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電話芝 三一一·三一一 振替東京七七三九番

F—19

天下一品

キッコーマン醬油

各印共 十六リツトル 一樽每에 鹿子蔦模樣小井五人前 一組

各印共 二リツトル 一壜每에 半磁器彫刻模樣貝形三五皿 一枚

印 八リツトル 一罐每에 鐵鉢形山水模樣刺身皿(小皿付) 一組

빠짐업시進呈 (特賣區域 朝鮮全道)

キッコーリウ醬油

チガミリウ醬油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景品附大特賣

映畫

映畫企業의將來 (十)

崔章

이映畫찌ー날리즘 特히 뉴ー스映畫에 關한 理論은 歐米에서는 이미數年前부터 만히 新聞雜誌에 記載되엿고 벌서 한 輿論을 形成하고잇스니 今後 이 朝鮮에 잇서서도 이問題가 찌ー날리즘論에 잇서 特히 映畫論에잇서 當然提起될 重要한 意見의 하나인줄로 主張한다.

이뉴ー스映畫에 關한 實際知識은 伊東恭雄氏의 『뉴ー스映畫의 世界』(『改造』三月號記載)이라는 論文에서 더욱仔細한것을 어들수잇다。氏의 調査發表한바에 依하면 現在世界의 뉴ー스映畫種類는 發行社別로 米國에六種 英國에 五種이잇고 佛國에는 世界最初의 뉴ー스映畫(一八九五年創始發行)파레ー·줄나ー르를 爲始하야 三種의 純佛國産과 二種의 米國系製品이잇다。其外에 蘇聯 伊太利 獨逸等에서는 各自國家上 國家가 直接 뉴ー스映畫를 統制하고잇스나 蘇聯에는 뉴ー즈·키노·줄나ー르이잇고 伊太利의 루ー체(國立映畫協會)와 獨逸의 우ー파는 各各 自國의 뉴ー스映畫를 製作하고잇다。

다음에 日本을 보건대 今年正月부터 그發行을 中止한『松竹發聲뉴ー스』를 除外하고『朝日世界뉴ー스』와『東日、大每國際뉴ー스』의 二種이 잇스며 他國에比較하야 二大新聞社가 直接뉴ー스映畫를 製作上映하는것이 注目할바이다。

前記한바와가티 뉴ー스의 映畫化에는 우리들이 直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수잇는 活字나라디오찌ー날리즘에서 求할수업는 獨特한 魅力을 가지고잇스며 우리들의 感覺을 通하야 오는 모든 事件과 場面은 가장 信賴할수잇는 正確한것으로 認識된다。이러하야 英米佛과가튼 나라에서는 뉴ー스映畫에 對한 一般大衆의 要求가 대단히 커지고 따라서 이 뉴ー스映畫專門의 常設館도 最近에는 漸漸 增加의 傾向에잇다。

亦是前記伊東氏의 記事에依하면 巴里에는 十五館以上의뉴ー스映畫劇場이잇고 그外에 汽車停車場에 뉴ー스上映의 設備가 잇는곳이 不少하며 이에對等하야 英國 米國에도 相當한數의 專門館이잇다。그리고 日本에서도 이趨勢에따러 昨秋부터 東京에잇는 日本劇場의 地階에 뉴ー스 短篇映畫를 專門으로하는 第一地下劇場이란것이 생겻다。

이제 이런뉴ー스映畫劇場의프로그람을 一瞥하면 그上映하는 映畫의 目次內容은 各國各地의 時事뉴ー스以外에 漫畫 音樂映畫 旅行映畫 科學映畫等이다。이것을볼때에 朝鮮에잇서서 科學映畫와漫畫는 現在技術設備 費用等의關係로 아즉 製作할수업는 地境이라할지라도 그外의뉴ー스 音樂旅行等의 映畫作品은 充分히製作할수잇슬줄로 밋는다。

朝鮮의 現下文化等其他의 發展의 動向은 對外的으로 報導할만한 뉴ー스材料가 만코더욱 朝鮮의 古典音樂과舞踊 風光明媚한各地方의自然景物과 朝鮮特有의 風俗習慣 그리고 美術工藝等長久한 歷史的遺物等等은 이를世界的으로 宣傳紹介할 價値가許多하다。

朝鮮의映畫製作企業에잇서 敎育 科學 旅行映畫 文藝 또는 뉴ー스映畫等의製作으로부터 오는 危險과困難性은 以上에말한朝鮮特殊의뉴ー스 音樂映畫 旅行映畫等의製作으로 充分히打開할수잇슬것이다。그리고 이것은 單只그製作技術의難易 生産費의多寡에關한問題만이아니며 그販路와需要性에잇서서 前者는 間或國內的또는民族的으로 制限되는念慮가업지안하나 後者에 잇서서는 比較的對外的國際的으로進出할可能性이잇스며 따라서 將來朝鮮映畫作品으로 輸移出하는데 가장 適當하고 容易한商品이 되리라고生覺하며 朝鮮의映畫企業으로보와 이方面의映畫製作에 特히 研究하고 實行할必要가잇슬이라고 밋는다。

結論

以上에말한朝鮮映畫의 企業化는現在朝鮮의 客觀的條件으로보와 僅僅히有望한事業의하나이다 다른 産業에잇서서 朝鮮人資本이 漸次追逐되는現狀에서 이映畫事業만은 그製作技術上 朝鮮的特殊性을가지고잇스니 朝鮮人의企業으로서 다시업는有利한 方面인줄노잇는다。그리고 日本內地에잇서서 各映畫會社間의 激烈한競爭에對하야 一般的으로率先하야 事業의開拓에着手한다면 現在競爭을 避하야 朝鮮映畫市場에 獨占的地盤을 建設하기어렵지안흘것이다。歐米는除外하고 日本內地의그것에比하야 朝鮮의映畫事業狀況의數字는 우에서본바와가티 極히未開함을表示하고잇스나 이런數字가 累年急速한增加를하고잇는것과 總督府當局의 朝鮮映畫政策의 發布에依하야 이事業은將來多大한 進步發展을하리라는것을 여기에豫斷할수잇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映畫에對한 理解와趣味의向上과함께 그동안 映畫技術에關한方面은 相當히發達하여왓고 監督 俳優等의人材도적지안흔狀態이나 現在의朝鮮映畫企業에는 다만安定한製作所와完全한設備만을要하게되엿다。昨年度에上映된朝鮮映畫는 總數의四分에 不過하엿스나 一般觀衆은 그作品內容에對한吟味 製作技術의 優劣을不問하고 몬저觀賞하기를 渴望하엿스며 大體로보와 그上映興行成績은 대단히良好하엿다고한다。

—新映畫評— 洪吉童傳을보고 (2)

金管

우리가 어떠한映畫를보든지첫재『즐거운』氣分을가지려는 마음의態度는 準備되여잇다 즐겁다라는 다른말로하면 詩的感興이다。映畫가詩는아니지만 詩를가지지못한映畫에서 즐거운맛을차즐수는업다 洪吉童傳에잇어서比較的 詩를담은場面은 끄테갓가워서 老僕이 녜일을追憶할때의 나라타주形式으로 그려노흔몃것뿐이다。

×

또 洪吉童傳이 로ー키ー로서의 致命傷은 錄音이 拙劣한것이다。그러나 現在 京城撮影所의 錄音操作으로서는 音量調節과 增幅의效果가 不完全한것이라는 노리는 듯고잇는 筆者이라 未備한 錄音裝置의 핸드·캡은 考慮하지안흘수 업다치드라도 洪吉童傳의 레코ー딩技術은 感心할수업다

다음 所謂 伴奏音樂이라고해서 使用된것은 非難을바더서正當하리라 생각한다

레코ー드(포리도ー르 洋樂盤)을 使用한것을 납브다고하는것은 아니다 원래洪吉童傳은 洋樂보다 古典音樂(朝鮮音樂)으로서 氣分을 助長하엿드들 베토ー벤의 ○短調심포ー니(第五交響曲)나 베ー토벤의 F調심포ー니(田園交響曲)을업은당도로안흔選曲된 탱고로 울리지안허도 되엿슬것이다、黑縣後賊와洪吉童이 追擊하는場面이라든지 결투하는場面에 運命交響曲의 피ー나레를反覆하는것이 어떠한 有數的效果을이잇섯든지 筆者는了解키어렵다。

名曲을 使用하는일은 조와도 使用할만한데 라서야 效果는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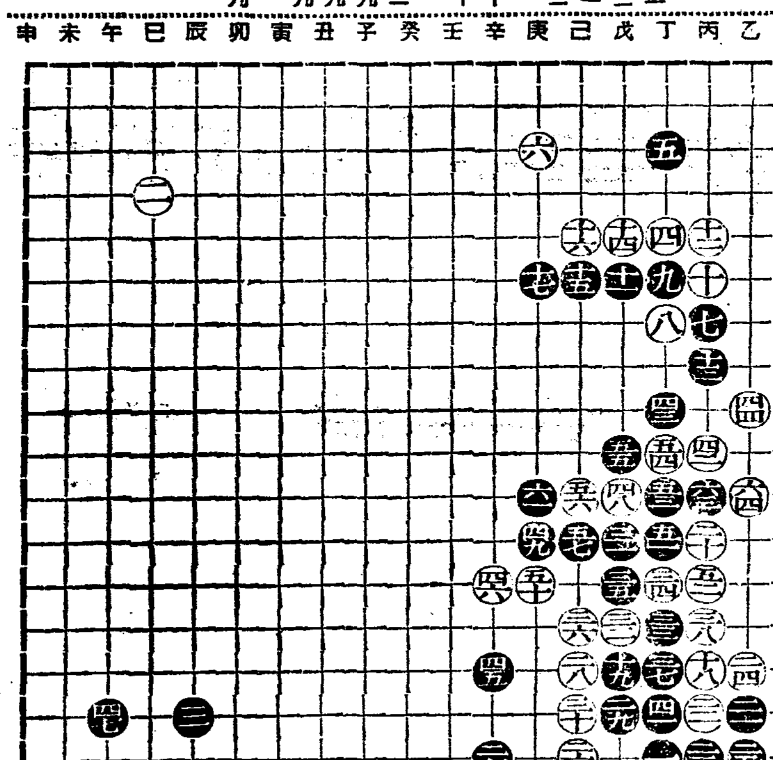
씨나리오가 映畫的形式을가추지못하엿고 監督에게는 主張하는이데ー가업고 로ー키ー에잇어서 初步的인漢近法을 無視하고 編輯態度는漸面의 시멘토리ー를缺殺하여 템포를업이햇고 따라 伴奏音樂은 赤面할수바께업는것이 로ー키ー洪吉童이라면 藝術的으로는 집어낼問題를가지지안코잇다 다만 우에서말햇듯이 興行的으로 低級판에게는歡迎할만한것은 推測할수잇다。

圍碁對局譜 ＝4＝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先 柳鎭河

● 庚의十二
○ 丁의十三
● 丙의十三
○ 丁의十一
● 丁의十
○ 戊의十
● 己의十一
○ 己의十二
● 戊의十九
○ 丁의十九
● 己의十九
○ 庚의十一
● 乙의十九
○ 丙의十九
● 乙의十一



黎棣文氏評曰 黑이 中央未覆을 向此洞罵하야 白이 耳角鎭壓함을 不顧하고 庚의十一로 白二點을 斷함은 失數가아닌가 白이 乙의十九로 眞中을 一試하니 黑의 活路가 全然杜絶되지라 黑이 從外救出를 計算함인가 其所謂習者一失이로다

라디오

二十五日 (木曜)

◇午後六時三十分 童話 延星欽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科學講演『高山植物이야기』 徵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講演『血液型이야기』 朱鎭勳
◇同八時三○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금愁心歌 三、孔明歌 四、寧邊歌 五、朴淵瀑布 金順紅 金蘭香
◇同九時 피아노獨彈 一、솔라브行進曲…차이코우스키作曲 二、洪牙利멜로듸中에서…드보르작作曲 三、폴로네ー즈…드보르작作曲 四、宮殿압에서…이에ー르作曲 五、솔라브·탄스…드보르작作曲 金福寶
◇同九時三○分 映畫이야기 金思子 李愚興
◇同自一一時 至一二時分 레코ー드放送(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라듸오見學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佐藤泰舜
◇同七時三○分 (東)講演 新村出
◇同八時 (東)常磐津
◇同八時二五分 歌謠曲
◇同八時四○分 (東)이야기 豆千代
◇同九時 (東)管絃樂 宮內省오케스트라
◇八時三○分 (東)寄席中繼 柳家三語樓外

二十六日 (金曜)

◇午後○時○五分 古談『危機一髮』 申淸居
◇同二時四○分 小學生의時間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一、이야기『朝鮮兒童의日常生活』 二、인사 三、唱歌 (가)四季의비 (나)산바람 (國語)新訂小學唱歌 (朝鮮語)尹石重謠 小松耕輔作曲 (다)아츰의노래 (國語)新訂尋常小學唱歌 (라)郵便配達 (朝鮮語)金順男作曲 (마)御代榮光(國語)今井田淸德作詞 吉澤實作曲 壽松公普校長 野中齊之助 同校六年女子 同校五六年女子 沈在玉 피아노伴奏 沈永櫃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自己가할일은自己가합시다 韓永鎭
◇同六時三○分 管絃樂 DK管絃樂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 青年과修養 養正高普 張志暎
◇同八時 趣味講座 詩歌에나타난녯날의風景 李秉岐
◇同八時三○分 音律 鐵山會 玄琴 李宗植 洋琴 李承烈 奚琴 池龍九 端簫 洪斗憲 細笛 細觱篥 杖鼓 李章夏
◇同九時 博物打令外 一、博物打令 二、鏊壤歌 三、金剛山打令 四、新高山打令 五、방아打令 六、양산도 崔貞植 李忠善 奚琴 李
◇同九時二○分 名曲鑑賞 (레코ー드演奏) 管絃樂 交響樂第五番(新世界)……드보르작作曲 第一樂章 第二樂章 라ー르고 第三樂章 알레그로·콘·포ー코 스케르쪼 第四樂章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李冕相 指揮 伯林國立歌劇場管絃樂團 크라이버
◇同一一時 레코ー드放送 (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波長三三三米)

◇午後○時○五分 이야기 山田信二郎外
◇同六時○○分 (大)이야기 白神久一
◇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分 (東)生活改善講座 三輪田元道
◇同八時 (大)義太夫 竹本小仙

二十七日 (土曜)

◇午後○時五分 (東)輕音樂
◇同三時一五分 常識講演 땀은웨나는가 大學病院皮膚科 鄭槿陽
◇同六時三○分 童謠 一、齊唱 초人불잇 二、獨唱 양꿈스런고양이 三、齊唱달마중 四、獨唱 비오는저녁 五、齊唱 아침 六、조각배 七、獨唱 새야새야 八、齊唱오리떼 忠信學院兒童 伴奏金龍變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東亞日報政治部長 金章煥
◇同八時 職業婦人에게希望듯는座談會 京城貯金管理所 鄭貞媛 東大門金融組合 金基鳳 京城郵便局電話交換課 崔金順 仁川郵便局電話交換課 金立分 外三人
◇同八時四○分 獨唱 一、歌劇 마르타中에서 "내너를본後에" 플로트作曲 二、아돌나의로만스 웨ー버作曲 三、海邊의노래 슈ー벨트作曲 四、넘은나의安息 슈ー벨트作曲 權泰浩 伴奏 金元福
◇同九時五分 野談 "울고금八字" 申鼎言
◇同九時三○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曹鶴鎭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分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同自一一時 至一二時 레코ー드演奏(波長變更試驗放送)
◇午後六時 (大)連續童話劇 BK고도모셔클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藤井甚太郎
◇同七時三○分 (大)獨唱 合唱管絃樂 城多又兵衛外
◇同八時三○分 (東)連續라디오小說 市川段四郎
◇同九時 (大)時事解說 池崎忠孝

★曆★

六月二十六日(金) 建甲午五月大(初八日) 己卯·土·九·收
●祭祀에宜함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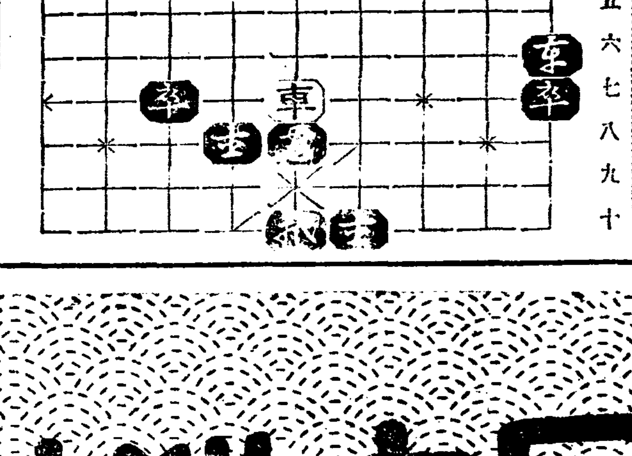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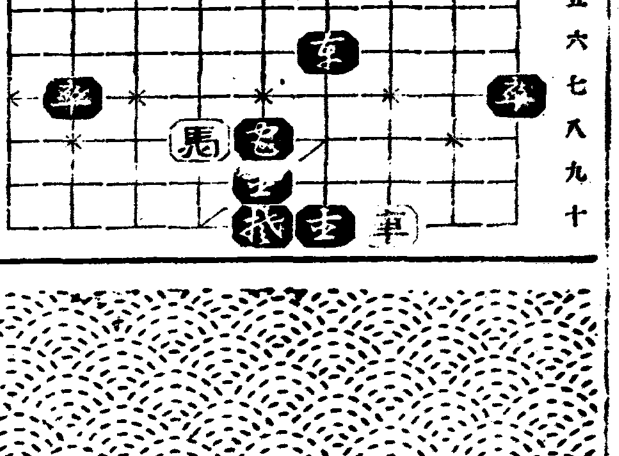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百手圖▶

戊九車—己六打馬
丙十車—丙七
丁六卒—丁三
丙七車—戊七
丁三卒—甲三
戊一漢—己二
辛七包—庚七
戊三象—丙六
甲三包—甲六
丙六象—己四



◀九十手圖▶



口內殺菌과口腔香料 仁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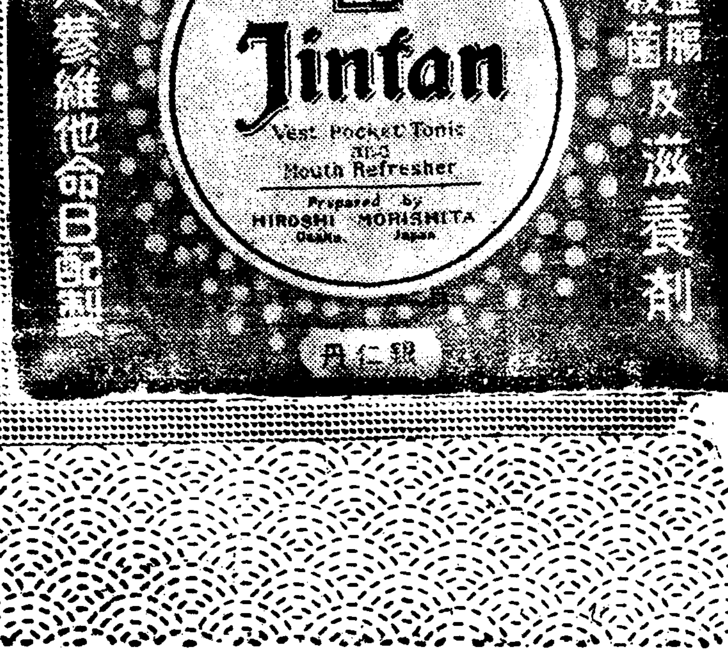
病은입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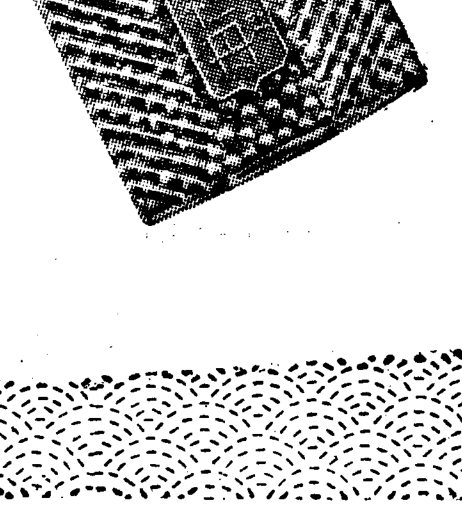
只今이仁丹活用季!

一、消化不良으로 腹痛、食慾不振에 근심하는분은반드시!食後에仁丹十五粒
一、腦力衰弱、記憶力減退、頭痛、頭重、眩暈症잇는분은恒常仁丹五六粒
一、疲勞안하는活動그以上의精力과根氣를바라는분、반드시仁丹을常用
一、사람은病의器、健康者도保健이第一 其秘訣에는仁丹을恒時五六粒
一、爽快한口薰、外出時의不快感船車의醉에恒常仁丹을必携하시압

銀粒仁丹 藥價

御試用分 百五十粒 十錢
富士容器附 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容器附 四百粒 三十錢
家庭容器瓶入 九百粒 五十錢
御德用分 一千粒 五十錢
御德用瓶入 二千二百粒 壹圓





大咸興實現도目睫
準備工作着着進捗
總督府當局과最後로妥協코
年內로基礎工事着手

【咸興】인구사십만명을 넉넉히 수용할만한 대함흥(大咸興)의도시계획은 목하함흥부가 주체가되여 착착진행하고 잇다는것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러한대계획을 실행하는데잇서서는 가장중대한 문제가 현재신흥정(新興町)에잇는 함흥역(咸興驛)의이전문제로서 그의 구체적타합을 하기위하야 관등(關藤)함흥부윤은 이십사일밤차로 급거상경하야 길전(吉田)철도국장을위시하야 각관계당국과 최후적타합을 행하고 내려온이후에 금년도부터 그의초공사에 착수하게되리라는데 그러면 이번 부윤이 총독부에 제출할 도시계획안의 대강을 탐문하면 국성시가지인 군영통(軍營通)대화정(大和町)본정(本町)은 현상대로 그냥두고 가옥의 정리만할터이고 시가지외변에 잇는 일출(日出) 산수(山手) 유락(有樂) 성천(城川) 황금(黃金)정의 일부에공하야 신시가지를만들예정이다 그리하야 위선 만세교(萬歲橋)로부터 군영통(軍營通)에이르는 로선과성천강(城川江)부근의 정거장후편으로부터 본정오정목(本町)을 관통하는 소위예정이간선(二幹線)을 련락하는 이십간외에개설할 사개로선은 이십간폭으로만들계획이다 그리고 리점면부평입으로는 운남면 동천면 수서면(東川, 雲南面)의삼개면에 십오핑개리나되리라고한다

平壤府營電車 線路延長問題 環狀線도計畫中

【平壤】평양부영전차의 선로연장(線路延長)에대한 부민의요망은 장차 칠면이십팔개리를 병합하는 대평양건설공작의 제일보인 행정구역확장을 장식하는 보람잇는 용단이잇서야 할것이라하여 이문제는 점차여론화하고잇는데 부영전차의 현재의구채(舊債)는 팔십삼만원이잇스나 이부채는 소화십오년까지 전부상환하기로되여 부영전차의남은 부채로는 작년도 전차구입부채 이십칠만원뿐이므로 현재의 영업상태로보아 이십칠만원 쯤은 문제도되지안허 요컨대 경제상태에 여유가 풍부하다고 볼수잇다

이때문에 로선의연장 즉평양부민의 열렬한요망인 평양환상선(環狀線)도 십오년 이후에는 반다시 실현될것으로 성산이 충분하다

數萬住民生命線
美湖川防築實現
十二萬圓의總工事費를드려
九個所로區分近近着工

【淸州】청주미호천(美湖川)제방공사는 다년간 관계지방민이요망하야 나려오든바인데 소화칠년부터총독부에서 백만원의공사비를지출하야 하류부터착수하야 상당히거대한제방을 축조하얏스나 상류지방이 다시문제되여나려왓섯는데 본년에일으러 국고와도비 지방부담등으로 십이만원의공사비를 지출하야 청주군강서면 신대리(淸州郡江西面新垈里)부근에 약일리(사키로)의제방을축조하기로되여 근간착공하리라는바 지방주민의생활을 고려하야 구개소로구분하고 공청부석하기로되엿다한다

淸州商校落成

【淸州】재단법인 청주상업학교의 신축교사는 작년부터 신축공사를진행하야 나려오든바 이제락성되엇슴으로 금월이십오일에 신교사로 이전하기로되엿다 한다

全朝鮮自轉車 競技大會盛況

【論山】귀보=론산시민주최 본보론산지국후원하에 개최된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이、삼량일에 구하천매립지광장(舊河川埋立地廣場)에서 개최한바 수원 경성 리리 전주등 각지에서 참집한 선수 이십여명의 질풍신뢰적 경승전은 천여명관중을 황홀케하엿슬뿐아니라 특히 회장대리 조성환(會長代理曺星煥)씨의 단독수상(單獨授賞)에 계한 각지일류선수련합경승전에 이르러 경성전태환(全泰煥)군의 초속도적질주는 만장의 갈채를 밧고 성황리에 종료한바 각류일착선수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自轉車 一流 一着 全州 金鍾完
〃 二流 一着 大田 吉龍善
〃 三流 一着 京城 金鐘源
女子選手 一着 大田 孫永淑
리ー레 一着 江景團體

軌道에서잠자다 急行車에轢死

【新泰仁】본적을 전북정읍군정우면수금리에둔 배병용(裵秉用)(?)이란사람은 지난이십삼일오후구시칠분 목포를향하야달리는 긔차에 갈려직사하엿다는데 원인은 그는수리조합 물간수로 종일밧까지 수감다니고 도라오는길에 어데서술을먹고 수금리 [illegible] 알뎀ー룡우에서 잠을자다가 그와가티목사한모양인데 그확실한원인은 알수업다고한다

慶州高等普校
八月中認可確實
─故李翁生前에傳達─

【大邱】경주(慶州)의대사업가인 고리규인(故李圭寅)씨가단독재산사십만원을드려 경주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그후 설립인가에 대하야 경북도당국에서도 멀사적으로 활동한결과 오는 팔월경에 인가되리라는데 씨가 금번에 신병으로 세상을 떠남에 대하야 경북도내무부장은 앙방한 귀자에게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慶北內務部長 阿部氏談

고리규인씨가 작고하엿다는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자귀가 생전에 뜻하든 고보교가 설립된 것을 보고 작고하시엿드라면 자귀자신도 퍽깃버하엿슬터인데 아즉 설립전에 세상을떠난것은 나로서도 유감으로생각합니다。그러나 얼마전에 그의 손자되는분이 와기에 팔월경에 인가되리라는 내용을 말하엿스므로 반다시 그전말을 그조부에게 말슴하엿슬줄로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설립인가에 대하야는 밋고 떠낫슬줄 생각합니다。운운

輕視못할家內工業
年產一千餘萬圓
比前年六百餘萬圓의增加로
이것만은우리가優勢

【咸興】함남도산업과에서 집계한 통계로보면 작년중 함남도내의 가내공업(家內工業)생산액은 일천삼백오십일만사천팔백구십팔원십전이란 거액에달한다。그중 조선인의 생산액은 일천이백삼십일만사천구백칠십구원삼십전 일본내지인의 생산액이 일백십구만구천구백십팔원팔십전으로 구십퍼ー센트는 조선인의생산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년도의 륙백팔십오만일천십일원에 비하면 약배나되는 륙백륙십만이천삼백팔십칠원십전의 비약적격증이다 생산품종별로보면

味·噌	一八九、二四六圓
蓄製業	一四四、五〇八圓
酒類	一三一一、〇五九圓
水飴業	一一六〇、一四五圓
紙物	一〇〇五、六四三圓
其他	

와가치 주류(酒類)가 단연수위를 점령하고잇다한다

龍源讀書會事件 二名起訴豫審에

【咸興】지난십이일에함흥법원에송치되엿든 용원독서회(龍源讀書會)사건 박주철(朴柱澈)(二二)등 네명은 그간 대정(大町)검사의취조를받고잇던바 이십삼일 그중박증봉(朴曾鳳)(?)박두하(朴斗夏)(?)의두명만기소되여 동법원예심에넘기엇다한다

淳昌地方麥作豫想
比前年萬餘石減
冷害에旱魃繼續으로

【淳昌】전북순창지방에는 작년겨울동안 근년희유의 대설한으로 인하야 일반농가에서는 금년의 맥작을 대단히 우려하여오든중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대한발로 인하야 가일층피해를 당하고잇다는데 금년도전군맥작 예상에 대하여 군농회 당국의 발표한바에 의하면 총수확고는 사만팔천사백사십칠석이라하며 전년도 실수확고에 비하면 이할오분이상으로 만여석의 대감수를 면치못하리라고한다 일반농가에서는 농가유일의 생명선인 맥작까지 황폐케되여 아프로 생활을 엇더케하

土地價奔騰하자
家屋撤去를命令
不然이면現時價로買入을强要
借地人十名이郡에陳情

【海州】만근수년간 비행기를타고 올너만가는 토지경기가 만드러내는 아름다운지안(?)부산물ー해주룡당포(龍塘浦)부근소재토지는 수년전만해도 매평일이원하든것이 작금에 이르러 룡당포항의 무역액의 격증과아울러 우부(宇部)계통의 조선세멘트회사의 진출등으로 약진을 거듭함에따라 토지가격은 매평십오원내지이십원정도로 앙등하엿다한다

이러한 토지경기를 긔회로하야 룡당포부근소재토지 삼천평을소유한 해주읍상정(海州邑上町)김씨(金氏)(?)는 그대지우에소화오년도부터 비러 그대지우에건축을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잇는 장완성(張完成)외 십명에대하야 현재의 앙등된 시세로그대지를 사든지 그럿치안흐면집을 헐어가라고 하엿다한다。그들장완성등십일명은 경제의여유가업는 세민들인터이라 돌연히 그러한 고가로 매입할수도업스며 따라서 금작이 대지에 의준비도 업시 철거를 하야 두에서 방황할수도업슴으로 수전해주군당국을 방문하고 그억울한사정을 호소하야 저렴한가격으로 평가해서 월부로 사도록 알선하여달라고진정하엿다한다

求禮金富豪家에
標榜强盜出現
이틀밤에세집을습격하엿스나
所得은別로업시潛跡

【求禮】지난이십일일밤 열두시경에 구례군산성리(山城里)김부호가에 만주방면에서 모종흉기를 가진 강도가출현하야 두집을 습격하고 이어서 이십이일밤에 또다시 한집을습격하야 동김씨대과 동리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한공기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잇스며 급보를 접한 구례경찰서에서는 비상경계선을 느리고 범인검거에 대활동중이라고한다ー이십일일밤열두시경에 김봉권(金鳳權)씨집에 중년남자가 월장침입을하야 무슨물건을 내노면서 나는 만주에서 온사람이니 속히 거금을내노라고 강청하다가 병중에잇는 주인김씨에게 뜻을이루지 못하고 곳이어서 김형석(金炯奭)씨집에 역시월장침입하야 바갓사랑에서 주인을차지면서 일대소동을 하는바람에 집안사람들이 담을 너머서 이웃집으로 피신하려는순간에 어느새 안대문을 너머들면서 추격을하엿스나 젊은주인들은 전부피신해버리고 칠십고령의 안로인한분만남어 잇섯는데 그자는 외집안을 삿삿치뒤지면서 간간히 바갓사랑에잇는사람들을 꿈쩍말라고 큰칼을겨누면서 위협을하야 가방에잇는돈 일원가량을가지고 잠적해버렷는데 대담하게도 또다시그익야열시경에 동리김형순(金炯珣)씨집을습격하다가 주인의고함치는소리에 온동리사람들이달려드는바람에 범인의종적은 오리무중에 감추어버렷다는데 구례경찰서에서는 시절이 비상시국인만치 극도로 긴장하야 사면으로 물샐틈업는 수사진을치고 활동중이라고한다

여갈것인가? 인심이 대단불안한중에 잇다고한다

失職을悲觀하고 青年鐵道自殺

【大邱】이십사일 대구에서는 실직한 청년이 슬어린 세상을비관하고 철도자살한 사건이 잇섯다。

이십사일 오전아홉시삼십칠분 대구역착 부산발 렬차특급이 대구칠성정 부산과정 입예이십사키로를 통과할즈음에 대구역에서 약십간가량되는 선로상에 잠복하엿든 청년한명이 뛰여나와 렬차와 정면충돌하야 즉사하엿는데 이청년은 남성정(南城町)팔집오번지 양복직공 김성호(金城浩)(二二)로 판명되엿다 그자살의길를 밟게된 원인은 양복집에서 해고를 당하고 생활할길이업서 세상을 비관한끄테 그와가티철도자살한것이라한다。

大同社淳陽支部創立

【陽德】지난十九일오후삼시에 양덕청년회관에서 대동사양덕지부(大同社陽德支部)창립총회를 열엇든바 대동사중앙본부위원장 강상호(姜相鎬)씨사회로 개최한바 당일 회원은 오십여명이며 피선된임원은 다음과갓다

被選된任員
支部長 吉岩于 庶務部長 朴[illegible]
七同 經理部長 李中男 敎養部長 [illegible]
部長 金能來 事業部長 朴順官

鑛夫一名慘死

【成川】지난 삼십일 오후한시 장진군 신남면 서흥리에 잇는 덕동광산(德洞鑛山)에서는 항로가 무허저서 작업하던 인부 일명이 못치여 무참히 죽엇다는데 그는 본적을 평북 박천군 북면사직리(博川郡北面社稷里)에 둔 오창도(吳昌道)(二七)라고한다

地方人事

▲金[illegible]浩氏(開城警察署司法主任)金山署로榮轉人事次本報開城支局來訪
▲元[illegible]氏(開城府庶務主任)新任人事次 同上
▲朴[illegible]根氏(安岳郡[illegible])新任人事次本報安岳支局來訪
▲[illegible]健兒氏(金浦郡[illegible])新任人事次本報金浦支局來訪
▲金[illegible]氏(江原道地方[illegible])赴任人事次本社江陵支局來訪
▲崔得守氏(永川公普校[illegible])公普校新任人事次本報[illegible]支局來訪

愛慾의彼岸 【33】

李光洙 作
金康穆 畫

문임이 집에 들어갈 때에 의사가 나오는것을 만낫다。

중문안에 들어서서 문임은、

「수술을 하랄적에는 아니하다가 이제와서 수술할 긔운도 다 업서진다는데 무슨 수술을 한다고 야단이야。사람이란 아모때에도 한번은 죽는것인데、죽는게 그러케 무서워? 괘니시리 사람을 복기만 하지안나?」

하고 느릿느릿한 소리로 웨치는 김장로의 섞난 소리엇다。김장로는 대청에 서서 눈을 부릅뜨고 안시방을 들여다보면서 호령을 하고 잇섯다。

문임은 김장로야 보거나 말거나 허리를 구피어서 인사를 하고는 부억모통이를 돌아서 안사방 뒤를 돌아서 가만히 대청 뒤시퇴시마루에 걸터안젓다。

「실타。약은 무슨 약을 먹으란말이냐。너의 아버지가 어서 내가 송장이 되어나가기만 바라시는데 약이 무슨 약이야。물 한 모금을 내가 먹을줄 아느냐」

하는 김부인의 악쓰는 소리가 들린다。

「그만두려으나。약을 안 먹으면 장히 무섭겟다」

하는것은 김장로의 통부은 소리。

「그래요。누가 먹는다우? 내 하로밧비 죽으께 영감은 어서 젊은 계집애나 하나 어더서 이쳔량 가지고 거드럭거리고 살아요。그러치만 이 집이랑 땅이랑은 아이들 이름으로 옮겨놋는것을 보고야 내가 죽을걸 새로 들어오는 년이 어떤 여우년이 들어올줄 알고。그년이 자식새끼 나하노면 이애들은 의지가지업시 쫏겨나라고?」

하고 김부인은 더욱 악을 쓴다。

「원 말 갓지아니한 소리。죽는녀편네가 무얼 이러고 저러고 잔 소리야 내 자식、내 재산 내가 자키나 잘 알아 하라고」

하고 김장로는 일어나서 사랑으로 나가버린다。

「혜련아、어쩌면 너의 아버지가 저러시느냐。저러케도 애닯치시냐。그래도 너는아버지말슴이면 다 올치?」

하고 김장로가 나가버린줄을알고 김부인은 혜련을 보고 운다。

혜련은 울며불며 가까수로어머니에게약을 먹이고 마루로 나오라。김장로가 일어나 나간뒤에 문임이 마루에 올라와 서 잇섯다。

「언니 언니 오셧수?」

하고 혜련은 제 부모의 추태를 문임에게 보인것이 부끄러워다。

「지금 와서」

하고 문임은 제 수건으로 혜련의 이마의 땀과 눈물을 씻겨준다。

「인생이 다 이런가。언니 부모두 이러셧수?」

하고 혜련은 문임과 함께 제 방에 들어와 안즈면서 문임에게 쓸어저울엇다。

「울지말어」

하고 문임은 혜련의 등시꼴세 땀을 씻가면서 위로하엿다。

「이럴걸 무엇하려들 혼인들을 해」

하고 문임은 일생을 독신으로 지나는 서양부인네들을 생각하엿다。그리고 말을이어

「난 정말 세상이 지긋지긋해 난 아버지두 미워할수업구 어머니두 미워할수업거든。두분이 다 팬찬은 사람들가튼데 왜들 그러실까。서루 미워서 미워서 못견디어하는 사람들가트니。내외란 젊어서는 의주가 조흐두 늙어지믄 저러케 미워지는건인가 그러니 사람이 일생혼자두 이 올흔가바ー아버지가 어듸 야 잇나? 아마도 어머니 말슴 정드린 여자가 하나 잇나바。어머니는 꼭 그러타시는걸。설마 저 친모야 아니겟지만」

하고 멍허니 무엇을 생각한다。

猪印
安住かとり線香
불이오래타기로第一
가도리

カトール本舖 設計 安住大樂房 大阪
A—8

岡山 渡邊兩博士推奨
新藥 鎭咳 コデス
百日咳에 小兒用、고데스
各藥店에서販賣
東京·大阪 笹岡製藥所

南京虫에 アー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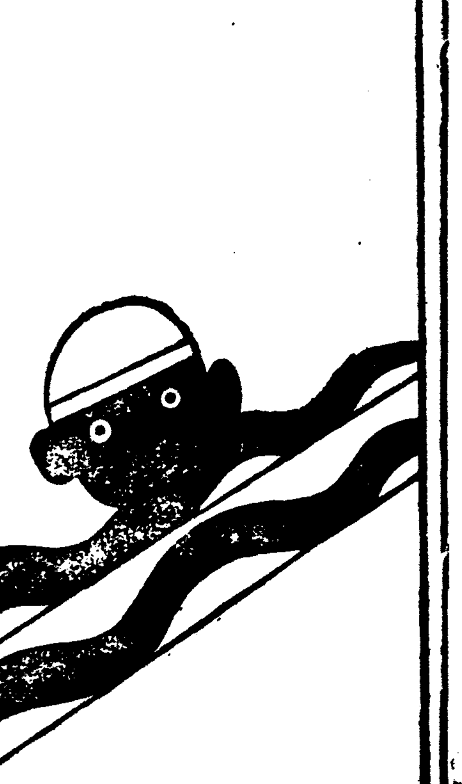
六月廿三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 午後一時半、四〇分、六時半
(次週부터 無說明映寫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M·G·M·超特作映畵
하안·하데잉 바바ー드·마샬 主演
晚春 (Flame Within)
◆M·G·M·超特作映畵
월리암·포ー윌 로사린드·랏셀 主演
米國의機密 (Rendezvous)
完璧의刺戟作品、快力亂麻를끗는듯한颯爽포윌의活躍에諸氏는拍手와갈채를보내리라
◆日活特作映畵
花嫁日記
杉狂兒、市川春代、主演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連日滿員! 滿都人氣는白熱化!
六月二十二日부터 漸入佳境의胃險連續大封切! 大興行
米마스코ー트社超大作全發聲連續
名匠알란·드와ー니作
流線怪盜列車 第二回中篇八卷
旋風兒죤우엔氏決死의主演
폭스社特別提供日本版
샤ー래ー그래이孃助演
좌ー래스라몬드氏監督作品
키ー톤의脫線水兵!
巨星바스타ー키ー톤氏主演
도로시아쎄도孃助演
大都映畵社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彌太ツペ流轉笠
海江田讓二主演
月宮乙女助演
大都映畵社特作時代連續
疾風蜘蛛篇
近衛十四郎主演 三城輝子助演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六月二十五日부터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유니버ー살超特作全發聲日本版
曲藝團
월타란 그 氏監督
主演…월스비아라 氏 메리폰 푸니지 스타아
百年前의地上最大의興行師바ー남의一生一代의傳記를映畵한怪物集
團한大怪奇劇
米國코롬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갱크 劇 暗黑街總攻擊
가사리빙 主演
兇暴한갱의擊滅! 壯烈한市街戰의展開 米國司法省絶讚
大都映畵社超特作品
親 三 人
根岸東一郞氏監督
北見禮子孃 主演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桃花劇場

母乳代用에最適
使用方法簡便
北海道ミルク
미 루 구
· 가장信用할수잇는煉乳 ·

煉乳專用 明治(銀口)哺乳器 全國藥店にて販賣
明治製菓株式會社

海へ山へ
暑熱を忘る・ハイキング
金剛山、智異山、鷄龍山、冠岳山
三防、道峯山、長壽山、冠帽峯、
赴戰高原、妙香山、俗離山、漢拏山
涼風を孕む 水邊
海雲台、松島、馬山、鎭海、
仁川、元山、西湖津、夢金浦、
迎日半島 海印寺溪谷、閑麗水道、

朝鮮總督府鐵道局

東光生糸會社 "製絲業者"로 認可

朝鮮製絲自然消滅

朝鮮人經營의 最初의 大規模製絲會社로서 大正八年五月에 創立된 朝鮮製絲會社는 百萬圓資本으로 經營해왓섯는데 生絲市況의 暴落에 빠저 經營者가 여러번 更迭되고 金鍾翰氏社長下에 近年操業해오다가 昨秋三井과의 借金關係로 休業되엿고 그後 債權者의 [illegible] 閔奎植氏의 손으로 東光生絲會社가 創立되고 東光에서 朝鮮製絲의 工場 全部를 賃借하야 昨年九月부터 朝鮮製絲側에서는 新財團을 求하야 操業해왓섯는데 其後 朝鮮製絲側에서는 新財源을 求코저 元來其他諸氏와 提手하야 十月二十二日臨時總會를 열고 重役一部를 改選하고 更生策을 圖하든바이엇스나

1、東光生絲와의 工場賃貸借解約交涉이 累次잇섯스나 不調된것

2、[illegible] 條件이 不合한것

3、[illegible] 等諸原因에 依하야 朝鮮製絲는 東光生絲에게 工場을 넘기고 어데로 事業치못하고 商法上의 會社로서만 今日에至하얏는데 一方 東光生絲는 朝鮮製絲業令實施에 依하야 製絲業者로서의 認可를 當局에申請中이든바 五月三十日付로 東光生絲를 製絲業者로認可하는 指令이 나왓다 이에依하야 오랜 歷史를가지고 朝鮮人經營企業의 하나로顧指하든 朝鮮製絲는 製絲業者로서의 資格을 喪失하는 同時에 自然消滅이 되고마럿다 (寫眞은 東光生絲會社)

朝鮮產業에 寄與圖謀

東光生絲社長閔奎植氏談

昨年에 朝鮮製絲作業中止로四百餘名의 職工이 失職의 悲運에 빠진것을 救濟키爲하야 東光生絲를 組織하고 爾來 作業해왓든바 이번 製絲業令에 依하야 製絲業者로서 認可되엿스니 朝鮮人側으로서는 혼치안흔 일이라 朝鮮產業界를爲하야 조곰이라도 企與하는바잇도록 誠意를 다하야 經營에當코저한다

七郡生繭買入

製絲業者로認可된 東光生絲는左記七郡으로부터 生繭供給을밧게되엇다한다

◇京畿＝廣州、楊州、開豐、坡州、抱川

東銀最高幹部 新人物로更迭?

閔頭取辭任 後任閔奎植氏
成專務辭任 後任成元慶氏
七月總會에附議決定

朝鮮人銀行中心의 東一銀行에는 그最高幹部陣容의 大異常을 보게되리라고한다 即 東一銀行頭取閔大植氏는 上半期의 定期總會를 압두고 同行整理案成立以來頭取를 辭任하랴든것을 實現키로 內定하고 이를 伴하야 그頭取後任에는 閔大植氏의 令弟인 奎植氏로 內定한모양이다 그러고 同行專務成樂憲氏가 專務를辭任하는 代身에 그令侄인 元慶氏(現禮山郡居住)로 大體內定된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來月中旬頃에 열릴定期總會에 附議決定케될것이라고한다

(寫眞은東一銀行本店)

後任各自家族推薦 頭取는아오、專務는족하

別項의閔頭取辭任은 오늘에잇서突然처음생긴일이 아니라 韓一銀行과 湖西銀行을 合併한뒤 東一銀行으로되어가지고 整理案이 成立되든뒤로 부터 閔頭取는 辭任할意思를 가지기시작하야 昭和九年七月廿五日定期總會에서 正式決定을하랴고하엿다가 同總會에서 株主의反對로 그辭任의實現을 보지못하고 畢竟에는 辭任撤回를 하고 오늘에 일흔것이다 그러나 閔頭取는 一向 辭意를 變치안코 機會가잇슬때마다 辭意를表示하고 따러서 別로 銀行에 나오지안코 오다가 이번에는 朝鮮銀行과 當局의諒解를 어더가지고 頭取의자리에令弟인奎植氏를 안치기로 한것이다 이와가티 閔大植氏가 頭取辭任을 固執함에잇서서 專務成樂憲氏가 그동안 挽留하여왓스나 오늘에 잇서는 當局朝鮮銀行側의 諒解가 되어잇슴으로 할수업시 同氏도 여러가지 關係上 專務를 辭任하고 그자리에 令侄元慶氏를 推薦케되리라는 [illegible] 一路이라고한다

大株主持株數

▲閔氏一家系統 東銀株의 所持株를 合하면 三萬七八千株로이것을 同行 總株八萬株에 比하면 二三千株가 不足한 半數이다。▲成氏一家의 所持株는 三千株가량이나 이곳에 湖西銀行頭取이든 金氏一家系統所持株 萬餘株를 合하면 一萬四五千株가량이라고。

兩氏經歷

▲閔奎植氏＝故閔泳徽氏三子로 일즉이英國캠부리치大學經濟科卒業 韓一銀行常務取締役 朝鮮製絲株式會社取締役 現朝鮮絹織株式會社社長 東邦殖產株式會社社長 永保合名會社代表社員(年四九) ▲成元慶氏＝中央大學經濟科卒業 湖西銀行支配人 南鮮製絲株式會社專務取締役 現忠南道議員 中樞院參議(年四六)

東銀支配人異動

廿三日附로 東銀支配人代理의 異動이다음과가티 잇섯다고 (括弧內現職)

▲庶務課長 解南大門支店支配人、寬勳洞支店支配人兼務(本店支配人)尹鳴炳▲補本店支配人命南大門支店支配人、寬勳洞支店支配人兼務(庶務課長)閔圭植▲補檢査役(南大門支店支配人)李正鎬▲補南大門支店支配人(永登浦出張所支配人代理)李庸宰▲補本店支配人代理命永登浦出張所駐在(檢査役心得)李溥▲補寬勳洞支店支配人代理(寬勳洞支店臨時店內支配人代理)趙南稷

"新陣容打診"

以上과가티 果然東銀의頭取、專務의椅子에 閔奎植、成元慶兩氏가 그內定된대로 안게되다하면 그新陣容을 어떠케볼가。이에잇서서는 사람이 갈릿스나 結局에는 現人物의延長으로 볼수박게업다 即 閔頭取의後任에 그令弟 또成專務의後任에 그令侄이안게되므로今後의同行運用上何等支障이 업슬것이라고 할수가잇다 그러나 閔大植、成樂憲兩氏는 兩銀行을合併한直接關係者이므로 어느程度까지 妥協의可能性이잇서왓스나 新人物의兩氏間에는 別로 親分이업는만큼 그步調가 一致되야 圓滿한提携를 보게될는지가 압흐로 注目의點이라고한다

東拓移植狀況

各地平均四割

東拓朝鮮支社管內 各支店二十日現在 移植狀況 平壤支店을除外한 植付總面積은 總豫定面積三萬五千七百八町步에 對하야 一萬四千二百九十四町步로 그植付比例는 四割强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一割三分三厘가량늦젓다 그리고 各支店別植付狀況은 如左하다(單位町步)

釜山	一、三二四	三、〇六
大邱	九七	三、一九
木浦	五、六二	四、〇五
裡里	三、三九	五、八〇
大田	二、九八	三、八七
京城	一、二三二	七、〇七
元山	五、六八	七、二〇
沙里院	七、八五	七、七一

硫安市價維持 對策決定

【東京電話商通】硫安配給組合에서는 二十四日 東京에서 緊急理事會를 열고 市價對策에 對하야 協議하얏는데 統制外에잇는 東洋高壓、宇部曹達도 參加하야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一、組合員及 東洋高壓은 三圓五十錢의 四分割外宇部는 同五分割引以上으로 賣出할것

二、市場浮動硫安中 一叺에 對하야 組合員及 東洋高壓品은 三圓三十二錢五厘、宇部品은 三圓三十錢以下의것은 全部 共販組合에서 買上하고 各其出荷會社에 返還保管할것

定期總會一瞥

同行上半期總會는 來月廿餘日頃에 열릴것으로 이總會의 議案에는 頭取辭任件을 附議하야 改選케될것이며 專務는 吳金兩取締役과 함께 任期가되므로 그改選에잇서 成樂憲氏가 그만두고 그令侄인 元慶氏를 推薦케될모양이다 그리고 吳取締役은 重任케될것이나 金取締役은 辭任하고 그자리는 缺員으로 둘것갓다고한다

對濠通商擁護法 朝鮮에서도實施

總督府서正式發表

對濠通商擁護法은 二十五日勅令으로서 公布發動을 보앗는데 朝鮮에서도 同樣으로 그適用을보게되엇다 右에對하야 總督府에서는 當局談으로 左와如히 發表하얏다

昭和十一年六月二十五日附 勅令第一二四號로써 濠洲에 對하야 通商擁護法이 發動되야 朝鮮에도 勿論適用되기로되엇는데 所謂 通商擁護法(昭和九年法律第四十五號)이라함은 外國이 日本品에 對하야 輸入防遏等 不當한 措置를取하려고 하는境遇에 이에對應하야 貿易의調節 又는 通商의 擁護上必要한 對策을 講究할수잇는것을 規定한것인데 必要에應하야 勅令으로 個個의相對國을 指定하야 發動하는것이다 今回의 勅令에 依하면 濠洲聯邦을 相對國으로 指定하야 또總督府令으로써 輸出入에 關한 許可申請及 屆出等에關한 手續을 各其定하얏다 그러고 此等勅令及 總督府令의 內容은 大體如左하다

一、勅令別表 甲號에 揭한物即 濠洲產小麥、小麥粉、羊毛等에 對하야는 朝鮮總督의 許可를 受하지안흐면 輸入함을 不得함 (勅令第一條)

二、勅令別表 乙號에 揭한物即 濠洲產 빠타、콘덴스·밀크 皮類 其他에對하야는 從來의輸入稅外에 從價五割의 輸入稅를 增課하기로 되엿다 (勅令第二條)

三、다음勅令別表 丙號에揭한物即 羊毛類에對하야는 朝鮮總督의 許可를 受하지안흐면 此를 輸出함을 不得함 (勅令第三條)

四、그리고 羊毛類에 對하야는 濠洲를除外한 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境遇에도 此를朝鮮總督에 屆出하지안흐면 안된다 (總督府令第八條)

重要商品界事情

製粉界前途

對濠通商擁護를 徹底케 하기爲하야 濠洲產業에 一大打擊을 줄에는 濠毛輸入에對한極度의制限과 同時에 濠小麥의 滿洲進出을 阻止케 될것이다 이에對하야 目下 日滿兩政府當局者에 各適切한措置를 講究되는模樣이며 不遠 滿洲國에서도 對濠通商에關하야 日本과 가튼 共同戰線을 배풀게될것이다 지금에 濠洲의小麥栽培者 製粉業者가 恐慌狀態를 呈한다는 最近의報道는 濠洲小麥粉의 滿洲進出阻止를 豫想한前途不安이 생길것이다

×그런데 滿洲에는 濠洲小麥粉은 얼마큼 輸入되는가 하면 이것을 大連의各國小麥粉輸入統計에 依하야 다음과갓다 (日淸製粉調查單位千袋)

	日本	米加	濠洲	上海	計
昭和九年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年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連經由 滿洲向小麥粉에 對하야는 以上과 가티 濠洲粉의輸入이 近年壓倒的 大宗을占하고 昨年中 日本粉六百七十萬袋의 輸入에對하야 濠洲粉은 七百四十萬袋로 約七十萬袋의 超過를 示하엿다 그러나 이것은 滿洲에 輸入되는小麥粉의總額이 안이고 그밧게 朝鮮經由 또는 北中經由의輸入도 잇는바 滿洲全體의外國粉輸入은 다음과갓다(商工省調查 單位千袋)

十年	日本	濠洲	其他	計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即 全滿洲는 小麥粉輸入에 日本粉은 濠洲粉을 完全히壓倒하엿다 그러나 濠洲粉의輸入은 日本以外의 他國粉에比하야 만코 日本粉을 빼인外國粉의 九十五%를 占하고따라서 滿洲의 濠洲粉輸入이阻止된다면 濠洲製粉業者에 對하야도 重大問題일뿐아니라 日本製粉業者에도 相當히 甚大한 影響을 주게될것이라는觀測이잇다

經濟界消息

○日本窯業總會＝日本窯業에서는 二十五日 午前十時부터 大阪本社에서 第六十一回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利益金 處分案(年一割)을 可決하얏다

取引停止 (六月二十二日)

▲金物 京城府本町一丁目二三番地 井原助太郎▲京城府元町 小田梱商店 小田梱治三郎▲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三番地 千秦寬▲京城府太平通二丁目二九番地 李北逑▲米穀薪炭商 京城府樂園洞一二三番地 大豊商會 代表者邊輸九

米日爲替

【京城二十四日發同盟】廿四日의米日爲替는前日에比하면 賣二十九弗四十四仙으로 一仙低 買二十九弗四十二仙으로 保勢

經濟寸鐵

十年間에 全朝鮮的으로 [illegible] 增產計畫 [illegible]

○ 久遠之策으로는 조타마는 [illegible] 對濠通商擁護의 實的效果가 今時에 나타날가?

○ 事實創業 十五週年紀念事業이 [illegible]

○ 이것이 다 무엇이냐 [illegible]

株式 肺患不勢 漸落

商況 (廿五日)

前場關門制

昨後場東京東新百卅圓割이 [illegible] 今前場은 當地東新도百卅九圓卅錢에 九十錢低寄後九圓八十錢으로 九圓四十錢에 下落大引이고 其他는昨後引에比하야 大新一圓四十錢低인七十圓丁 日產十錢低인七十圓卅錢에 各大引 [illegible]

後場漸落

日鑛等 雜株低 [illegible] 各關門의 不勢로서 結局東新百二十九圓十錢、日產六十九圓七十錢、大新六十九圓五十錢、鍾新百五十五圓五十錢 大引

那邊에落着? 東新百卅圓割

明年度豫算은 軍部의態度로보아 莫大數字가 豫想되며 그財源으로서 增稅도相當히加重케될것이 當然하며 他方海外情勢도 樂觀不許로 通商擁護法發動後의 對濠關係도 問題이오 新西蘭의日本品輸入防遏、中國의排日貨、貿易前途念慮가잇고 對內的으로不安現象이 만하 東新은百三十圓關門이깨어지고도 那邊에落着될지 모르는肺患的惡質市勢化한이인데 實込의反動이나기대리는形便이다

雜株와東新을 仕手戰에利用

東新은取組가적고 實항이 그리자미잇는일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모두손일만잇스면 賣叩한다 昨今은雜株過高의 鞭이 잇슴으로 그保險繫가만코 雜株에 一反落을 求코저하야 東新下値를 希望人氣가 地場에 潛在한관계 增稅問題를 絶好의 機會삼어 東新百三十圓을 征伐함에 成功한모양이다

增稅案의實體 判明後는回復

增稅案의 實體가判明될때는 增稅市勢는 終局일것으로 그때까지는 困惱를當할것인데 增稅案이 發表되면 어떠할가? 如左히 보는사람이잇다 東新에 取組가 만허든면 그打擊이 大할것은 昭和九年藤井藏相의 增稅案時 僅僅三千 [illegible]

모든것을繫한 東新大反動?

[illegible] 增稅로 그만한큰 打擊이 잇섯던것을 보면 집작할일이나 지금은 그當時와가티 買滿臉이아니오 取組가 적으니 別無大打擊일것이며 其後에增稅를織込코 買한다면 根强한것이잇서 비로소 힘잇고 굿센 市勢를 期待할수잇슬가한다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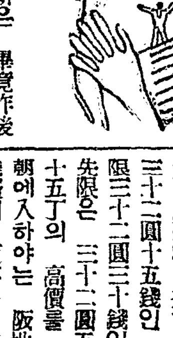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整理一順과 共히 短資의引締豫想으로새로이投資買가 誘發하야 一齊好調를示하야는 長期는 三三年佛貨債共히 一圓 二十錢高이오 實物로는 四、五分利債十錢 內外上伸이고 過日上場된 三分半은 九十八圓 十錢으로 更히 十錢高의 新高價를 現出하고 米貨五分半二十五錢의 買進이엿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一、四八 ▲第三五分一〇二、四六 ▲二二年四分一〇〇、九〇 ▲二八年四分一〇一、一七 ▲一回四分一〇一、六〇 ▲米貨六分半一三九八、一〇 ▲佛貨四分 [illegible]



市場六感

(株)……東京東新은 畢竟昨後場 百三十圓關門이깨어지고今前場도 九圓三十錢의 低價가 잇섯스나 亦是 投機關係인지 下旋 ▲七月三日 閣議에서增稅案이 發表될때까지는 東新은 無反響落의 形勢濃厚▲얼마까지 떠러지겟느냐는말수업, 될나 增稅가 判明되고 戒嚴令이 解除되면 一爆發이 잇슬지도모른다 突起는 警戒處일듯

(米)……當地仕手의 關係를 보면 地場의 絶對賣成으로 境遇에 依하야는 買方의 損退할 餘暇도업시 보기조케 一場瓦落을 告할것이라는 說이濃厚▲그러나 正米의 實勢가 依然 凶作後의 本態를 버서나지못하고 꾸준하게 頑强함을 보아서는 實實成한다는것도 難關▲當中限의 軟弱은 一時的現象이 아닐가한다▲그런데 好雨를 齎來한後에는 實情하든 農家의 態度도 緩和하여질것이오 딸아서 正米의 實勢도 軟弱할 모양이라고 全혀 天候가左右?

今日財界 (廿五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 東京三品期米 [illegible] /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價 [illegible] / 一斤價 [illegible]

◆株 (單位圓) 朝新 [illegible] / 東新 [illegible] / 日產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 大阪棉花 [illegible] / 大阪人絹 [illegible] / 大阪砂糖 [illegible] / 三品 F A Q [illegible]

期米 急轉直下 臺割

前場少漲

昨後場 阪地三十二圓四十四錢에 落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四十四錢인 一丁反高를 拔하고 三十二圓三十九錢인 五丁低로 寄付한後 阪地一節三十四錢으로 四十四錢까지 返戾하엿다가 四十錢에止場함을伴하야 二節三十錢으로 四十錢까 跳返하엿다가 結局 三十五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暴落

後場은 三十二圓三十九錢에六丁低로 始場後賣物殺到하야 急轉直下로 三十一圓九十九錢三本圓台割로 三十二圓〇一錢에止場하다

大勢一息狀態 此邊서終月乎

新甫入限은 三十一圓八十錢에發會하야 六十三錢까지下抑한後日本內地의空梅雨 朝鮮의旱魃纖續으로 昂騰하기始作하야 三十二圓七十錢이란昭和三年以來의初有高價를示하엿다 此에는最高公定價格의接近으로 買方이警戒自重할뿐아니라 賣方의雲孱戰이開되엿슬뿐아니라 때마침雨가잇슴을 機로한 買方의 投物도도한 업지아니하야 雨量不足으로 旱魃가 再燃될을 밟아 反히八十丁의 昂騰을 본後 大勢는 一息狀態를 呈하고잇다 要컨대 市勢의 位置로보더라도 買方으로서 絶對馬力을 내어 前日의 高價를 上廻키 難한狀態에잇스며 又는 氣壓의 配置로보다할지라도 不遠한 時日에 好雨를齎來할듯한 傾向도업지아니함으로 當分反撥은 期待키 難할것갓다 果如何?

先限은軟弱코 當中限은底强

昨朝阪地先限三十四圓四十四錢인 九丁反高와 共히 當地는 當限三十二圓十五錢인 十六丁高、中限三十二圓三十錢인 十三丁高로 先限은 三十二圓五十五錢인 二十五丁의 高價를 示하더니 今朝에入하야는 阪地三十四圓三十錢의 反落을 伴하야 先限은 三十二圓三十錢으로 高價에서 二十五丁의 反落을 告하엿스나 當中限은 幾分 軟調일뿐으로 比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較的底强味를 保하고잇다 要하면 正米의 事情은 持米側의 絶對賣惜으로 實勢의 低落을 不許하는關係上期近도 또한 强硬한모양인데 期近은正米의 瓦落을 告하기外에는 採算上低落을 許하지못할것이오 正米는 產地農家가賣急하기外에는 또한低落치안흘것이며 又는農家의賣急은 一朝好雨를 齎來하야 豐作의光明을보이기外에는 容易치못할것임으로 結局大勢는 正米의實勢如何가左右할모양이다

堂島前場强調

【大阪電話】北朝鮮降雨로 目前側實進이나 朝鮮側의 連節買로 突入警戒이오 上向이고其後小浮動保合이나마 底意는頑强이엇다

▲賣方＝中各乘換 地場軟派 神戶側 地場乘換 ▲買方＝朝鮮側 台灣側 播州側 地場小口側

康益夏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各地正米

京城軟化

定期頑强이나마 買氣不引立으로 十錢軟化인 丸仁三等三十一圓 九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 三十三圓五十錢

仁川少弱

實行不活潑과定期의 少緩을보고 十錢低唱이나 產地 事情은依然不變이오 强硬態度가 繼續되엇다 丸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 六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五錢

釜山硬調

高價에는買氣不添이오 商談不振이나 實物拂底와定期强調로 當用側의買覘가잇서 十錢硬化인 角ㇷ三等卅一圓七十錢 四等卅一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六錢

大邱强調

降雨不充分과來月初의實行活潑豫想으로 買方態度가顯著硬化되어 氣配更히十錢引締인 角ㇷ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卅一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十錢

群山少强

移植狀況이不振임으로 아주產地의 賣氣가업스나 日本內地로부터는 需要米에 應할되어 散據配을不敢하얏다 買物이오지안코 大閑散인 麥ク三等三十二圓二十錢 四等三十二圓丁 一等白米十三圓八十錢

木浦强調

本府的降雨備後의 感으로所持側이 一齊賣惜態度를繼續이오 取引은 閑散하나 丸木三等三十二圓三十錢 四等三十二圓丁 一等白米十三圓丁

金融 (廿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純金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廿五日)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綿油沖價◆ [illegible]

◆綿粕沖價◆ [illegible]

◆쥐카코期米◆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 (廿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鑑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八、五五〇 累計 一七九、一五〇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米 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二丁目

期米 (廿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商品 (廿五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朝鮮紙物都賣 全北企業株式會社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電光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八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一五四番 北 兼委託販賣